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 실 행 자 료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목 차

제 I 부.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09
	1.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10
	2. 교육과정의 변화 준비하기	16
제 II 부.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23
	1. 편성하기	24
	2. 교수·학습 실천하기	32
	3. 평가하기	60
제 III 부.	협력자로서의 교사	67
	1.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68
	2.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기	73
	3. 지역지원체계와 함께하기	78
제 IV 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	83
	1.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숲 속 하루 놀이	86
	2. 공간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99
	3. 자료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 반짝이곤 놀이	111
	4. 자료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흙 속에 숨은 색깔	123
	5.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 지렛대 놀이	135
	6. 통합 학급에서의 놀이 사례: 함께 해서 더 즐거운 놀이	149

「놀이실행자료」의 성격과 집필 방향



「놀이실행자료」의 성격

- 이 자료집은 2020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3종의 자료집 중 하나이다. 이 자료집의 목적은 교사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놀이실행자료」의 역할

- 이 자료집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오던 교사들에게는 운영의 방향성을 확인시켜주고, 다소 교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던 교사들에게는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놀이실행자료」의 활용방안

- ▣ 개정 누리과정은 전문성에 기반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 자료집은 개별 기관 및 교사가 각자의 상황과 여건 하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생각을 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며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 ▣ 이 자료집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놀이하는 유아의 권리를 이해하고 유능한 유아를 신뢰하며, 변화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기관은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생길 때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 교사, 학부모, 원장(원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놀이실행자료」의 구성 안내

▣ 이 자료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Ⅰ부: 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의 역할 및 개정 누리과정 실행 전 각 기관과 학급별로 준비할 내용을 안내한다.
- 제Ⅱ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편성과 교수학습 실천,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예시와 함께 제시한다.
- 제Ⅲ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질적 운영을 위해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Ⅳ부: 6개의 사례를 통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실재를 보여주므로 제Ⅱ, Ⅲ부와 관련지어 살펴보기 바란다.

▣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실재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자료집 전체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후 개정 누리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궁금증이 생길 때 제Ⅱ, Ⅲ부에서 관련 내용을 기관 및 학급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참고하여 활용하기를 권한다.

▣ 제Ⅱ, Ⅲ부 각 장의 내용 구성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고민을 소개한다.

교육계획안에 대한 고민

“ 기존 계획안의 양식이 ‘실행된 교육과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연간, 월간, 주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일일계획안에 놀이와 활동을 구체적인 서술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획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계획안에 없었던 놀이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

1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한다.

누리과정의 편성이나
교수·학습 실천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나 학급에서 검토하거나
운영해볼 내용을 담고 있다.

바깥놀이를 포함한 놀이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면서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놀이의 흐름을 중단했을 때 중요한 배움의 순간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놀이시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 바깥놀이를 포함한 놀이시간은 일과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한다.

예시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누리과정의 편성이나
교수·학습 실천과 관련한
예시를 제시한다.
해당 예시는 정답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림자 인형으로 놀이하면서 만들어진 극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학급 전체가 함께 모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놀이하면서 그림책을 빌거나 던지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잠시 모여서 책을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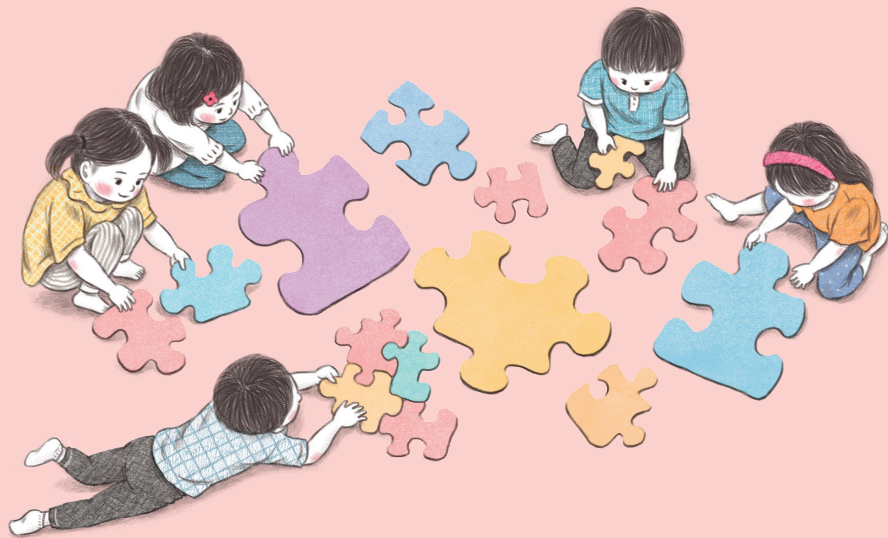
해당 교수·학습 실천이
실제 놀이사례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소개한다.

• <제 IV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놀이실행 및 지원을 기록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p. 108)
- 두 개의 놀이 주제를 반영한 월간교육계획안의 예(p. 120)
- 실행된 교육과정과 예상 놀이주제를 기록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p. 132)

I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1.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2. 교육과정의 변화 준비하기

01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율성’이란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드러내는 새로운 흥미와 관심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의 동일 연령 학급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내용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교사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놀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간략화한 것이다. 교사는 간략화된 교육과정 내용을 기반으로 ‘유아와 교사가 동시에 주체’가 되는 누리과정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에 생활주제에 맞춘 계획된 활동을 놀이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면, 이제 이를 지양하고 유아에게 마음껏 놀이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개정의 취지이다.

진정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의 책무성이 자율성을 뒷받침할 때 완성된다. ‘책무성’이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인식 및 실천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의 책무성은 놀이 속에 녹아 있는 배움과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읽어내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교사가 수시로 일과 가운데 유아·놀이 중심의 철학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수를 실천할 때 지켜진다. 기존에 혹시라도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놀이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즉,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여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자로서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에 맞도록 놀이를 잘 운영하기 위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 둘째,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 셋째,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 넷째,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이다. 각각을 교육과정의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해하고 실천하기

개정 누리과정에서 일과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특별히 ‘놀이’를 중심으로 일과를 편성할 것을 권장한다.

- 교사는 누리과정 총론 및 5개 영역의 내용을 숙지하고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 누리과정 개정의 중점 중 하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일과에서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유아들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교사가 계획해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아 및 놀이 중심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예: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유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나 일상생활을 잘 관찰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를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가는 공동 구성자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유아라도 자유롭게 놀이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임을 신뢰하고 유아의 놀이를 잘 관찰해야 한다.

- 유아의 놀이를 잘 관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의 파트너로서 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유아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좌절과 감동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아의 놀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를 이해하려는 민감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유아가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것, 스스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아들이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총체적 의미를 충분히 읽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격려, 미소, 공감의 표정을 보이거나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놀이를 관찰하다가 배움이 일어나도록 질문이나 제안을 건네 보는 등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언어적 지원, 공간 구성을 바꾸어주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환경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적 지원을 할 때는 심미적·창의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공간과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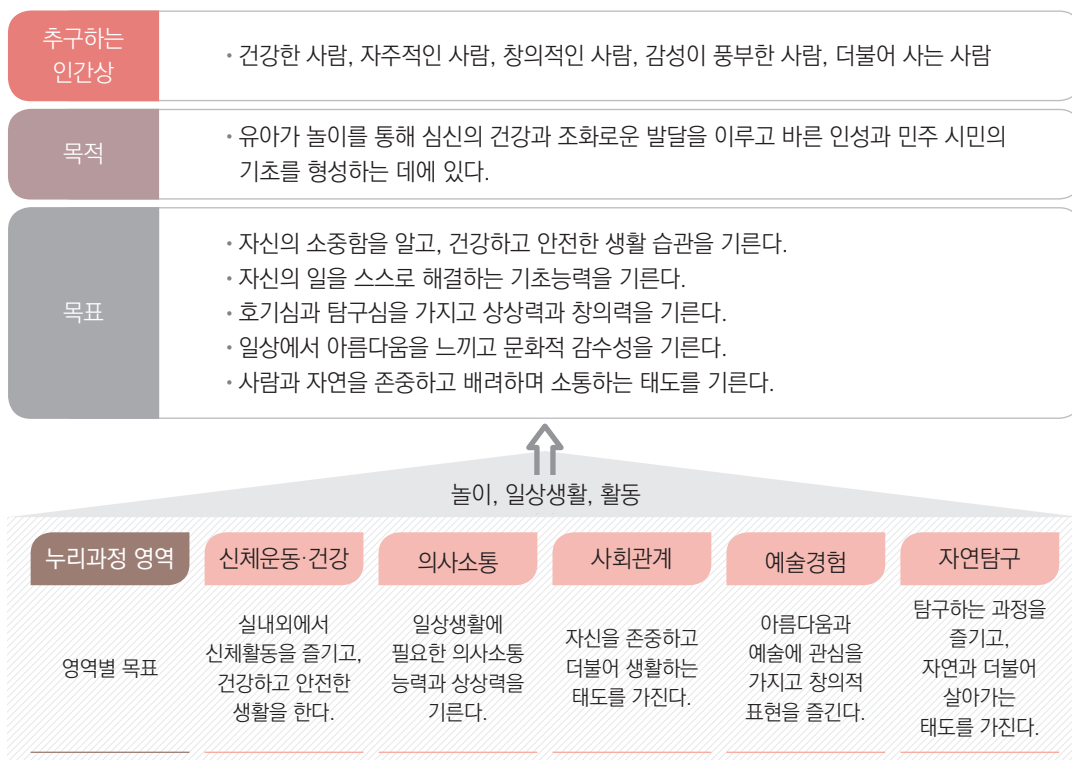
3.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선계획하여 ‘계획-실행-평가-계획’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선형적’ 과정을 지양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다가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정 누리과정은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리과정 목

적과 목표 및 5개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유아의 성장 변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유아의 배움을 잘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교사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 개정 누리과정은 과도한 부담이 되는 평가의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므로 기록 및 평가에 있어서 틀에 맞춘 과도한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형식과 분량에 있어 기관별·학급별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 진행된 주제 및 놀이나 활동에 따라 누리과정 5개 영역 중 일부 영역이나 인간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놀이 에피소드나 활동보다는 전개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누적된 기록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1]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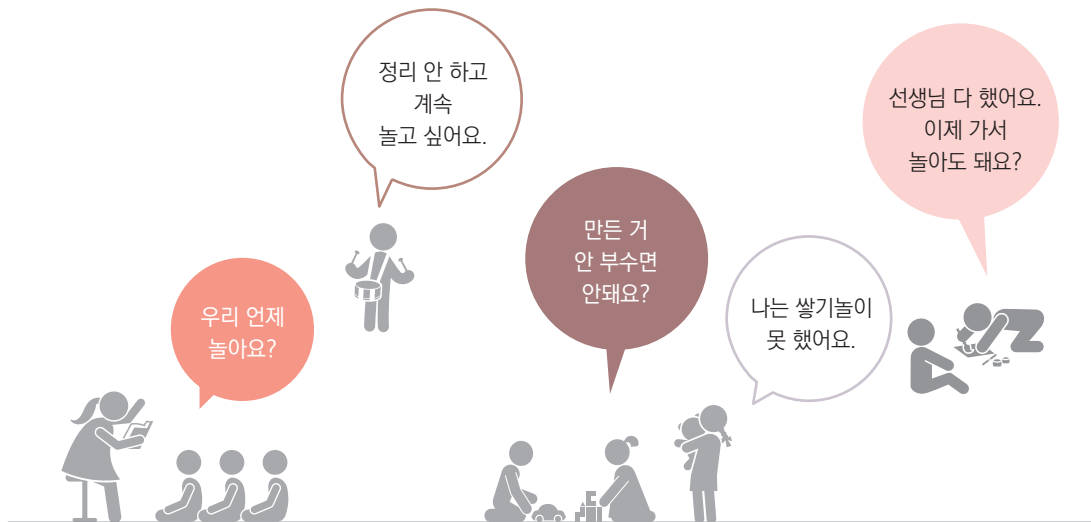


4.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유아·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일과 속에서 [그림 1-2]와 같은 유아의 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면 개정 누리과정이 강조하는 유아 주도적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교사의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는 자신과 유아의 역량을 신뢰하고,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급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교육철학과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배움을 이어가야 한다.

[그림 1-2] 교사주도적 놀이시간 운영 시 나타나는 유아들의 반응



-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각 유아와 놀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를 언제,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적절한 상호작용의 순간을 놓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교사 주도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는 한편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 보람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불안감은 교사가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교사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민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교사의 계속적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나아가 시·도 및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02

교육과정의 변화 준비하기



1. 관계의 변화 생각해보기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기에 앞서 교사와 기관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질 높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하다.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관계이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교사, 학부모, 원장(원감), 지역지원체계¹⁾ 간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놀이의 가치 및 교사와 유아의 역량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 및 조직 문화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 유아와 교사의 관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계 변화의 핵심은 유아-교사 간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사 간 민주적 관계 정립을 위해 교사는 놀이하며 배우는 유아의 역량을 최대한 신뢰하고 이를 교수실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유아는 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해나가는 존재이므로 일과 구성, 놀이공간, 놀이자료, 평가 등에 있어 유아의 소리가 반영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1) 개별 유치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개별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시·도청, 시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의미함.

○ 교사와 원장(원감)의 관계

원장(원감)과 교사 간의 관계도 협력적·지원적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그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충분히 집중하여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교육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따라서 원장(원감)은 교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부모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도와야 한다.

○ 기관과 학부모와의 관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과 학부모와의 교육 철학에 대한 공유 및 협력적 관계가 더욱 증시된다. 학부모가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놀이가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가 놀이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유아·놀이 중심의 양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원장(원감)과 교사는 놀이의 가치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가정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료 교사 간의 관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계 변화의 또 다른 축은 교사 간의 협력적·지원적 관계이다. 동료 교사들, 특히 동일 연령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끼리 학급별로 차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거부감이나 경쟁심을 가지기보다 격려와 정서적 지원, 배움을 나누는 협력적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 유용한 정보 및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

○ 기관과 지역지원체계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허용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방식의 성격이 강했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청, 시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이제 교사들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평적 지원 및 협력 체계’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누리과정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역지원 체계는 행정적·재정적 절차 개선, 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문서 간소화 및 기관별 자율적 계획·평가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역할 수행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변화의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기

지금까지 유아의 소리를 듣고, 관찰 및 기록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온 기관이나 교사는 큰 변화나 특별한 준비 없이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기관이나 교사 개인이 변화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부분이 많다면 시작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변화의 핵심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되었다면 다음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거나, 몇 가지를 조금씩 동시에 변화시켜 볼 수 있다. 기관이나 교사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의 기간 역시 단기간이 아니라 한 학기, 일 년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그림 1-3]은 변화가 필요한 교사 개인이나 기관에 시작점에 대한 안내이다. 기관과 교사는 변화를 위한 단계를 협의하고 이를 실천하되, 상황별 요구에 따라 계획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실천할 수 있다.

[그림 1-3] 개정 누리과정으로의 변화를 위한 순환적 과정



1 변화할 점을 찾아본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모든 기관과 교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관과 교사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을 파악했다면 그 부분이 변화의 대상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관차원에서 변화할 점 살펴보기



- **교육 철학:**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철학을 이해하는가?
- **조직 문화:**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교원 간 신뢰하는 문화인가?
교사 간 협력하는 문화인가?
기관의 행·재정적 절차 및 구조가 교육과정 변화를 지지하는가?
- **학부모 지원:** 학부모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가?
- **운영 및 실제:**
 - (문서) 문서작성과 관련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는가?
 - (주제) 주제와 관련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는가?
 - (시간)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는가?
 - (공간) 융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는가?
 - (자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는가?

교사차원에서 변화할 점 살펴보기



- **교육 철학:**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철학을 이해하는가?
- **교육과정 지식 및 이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갖추고 있는가?
- **일과 구성 및 실행 역량:**
교사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연계하여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관찰, 기록 및 평가 역량:**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관찰·기록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운영 및 실제:**
 - (관계) 유아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동료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
 - (문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한 문서를 사용하는가?
 - (주제) 교육과정 운영에 유아의 놀이에서 발현된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는가?
 - (시간) 유아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허용하는가?
 - (공간)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가?
유아의 심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가?
 - (자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가?
유아의 심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자료를 제공하는가?

2 우선순위를 정한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기관마다 원장(원감), 교사, 유아, 학부모와의 관계 및 환경과 자료 등이 준비된 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변화의 노력 정도나 필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원장(원감)은 기관이나 학급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변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변화의 방법을 찾아본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변화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각 실행계획의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계획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4 실천하며 돌아보고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단계에서는 수립한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 실천방안, 교육과정 운영 기간, 책임자 등에 변수가 생긴다면 이를 반영하여 앞 단계로 돌아가 계획을 새롭게 변경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다시 거칠 수 있다.

- 유아·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변화의 중점내용과 적용은 「제Ⅱ부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에 실제적인 예시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 다음은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앞둔 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기관 및 교사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정하여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우선 순위 1〉 학부모와 이해 공유[기관차원]

- 학부모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변화 및 놀이의 가치에 대한 안내 필요
- 학부모 대상으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및 안내
- 가정통신문 양식의 변화 예고 →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 ↳ 가정통신문을 통해 월간 및 주간 계획안을 제공하던 것에서 이제는 교육과정의 실행 후 실제로 전개된 교육과정을 놀이중심으로 소개할 것임을 알림
- 학부모 대상 놀이의 가치 및 효과에 대한 학부모 교육 계획[1학기 초] → 학급별로 실제 학급에서 전개되고 있는 놀이를 소개하고 의미를 찾아보는 학부모 소모임 운영
[학부모의 반응을 반영하여 결정, 1학기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정되면 2학기 중반에 시작으로 계획]

〈우선 순위 2〉 유아와의 관계 민주적으로 정립[교사차원]

- 이번 학기부터 놀이공간이나 놀이시간, 자료 사용에 있어서 유아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기 → 신학기 시작 전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완독, 연수 자료 재검토 및 온라인 연수 동영상 재시청/학기 중 수시로

〈우선 순위 3〉 공간 및 자료의 변화[교사차원]

- 교실 내의 흥미영역 및 가구 재배치를 통한 놀이공간의 확장
- 바퀴가 달린 교구장으로 일부 교체해 볼 계획 → 신학기 시작 전
- 놀이를 위한 자료 변화 시도
- 유아들에게 원하는 자료 수시로 요청할 수 있음 공지하기(이야기 나누기)

〈우선 순위 4〉 시간 및 문서의 변화

·
·
·

II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1. 편성하기
2. 교수·학습 실천하기
3. 평가하기

01

편성하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학기, 일 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과를 놀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하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놀이는 일과 구성의 단위로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와 바깥놀이를 포함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실천자이자 연구자로서 부단히 노력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교육과정이 개선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의 편성·운영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때 교육계획과 일과구성의 과정에서 교사가 겪게 되는 고민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육적 지원 계획해보기

계획하기란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시간을 조직하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여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행된 교육과정을 담은 것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의미를 둔다. 교사는 전체 또는 개별 유아가 진행하고 있는 놀이에 초점을 두되 유아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

는 크고 작은 관심사,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험, 계절이나 날씨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 기관의 특별한 행사 등을 반영하여 계획할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계획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지역적 특성이나 철학에 맞게 교육계획의 양식이나 작성 시기, 활용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배움의 통합성, 융통성, 자율성을 강조하므로 기존의 문서양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작성의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형식이나 분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통합하거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계획안에 대한 고민

“ 기존 계획안의 양식이 ‘실행된 교육과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연간, 월간, 주간 교육계획에 기반하여 일일계획안에 놀이와 활동을 구체적인 서술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획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계획안에 없었던 놀이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

1 연간계획을 검토한다.

연간계획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기관의 철학, 지역사회 특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연간계획은 학급 차원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년간의 중요한 경험(예: 기관 적응, 계절, 명절, 그 해의 특별한 국가적 행사, 기관 행사, 진급 등)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 연간계획은 한 학급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자료이므로 기관 차원에서 연간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유아에게서 발현되는 놀이 주제가 학기를 진행하는 동안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연간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연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유아들의 놀이 경험에 따라 시기와 기간 등이 바뀔 수 있다.

2

월간, 주간, 일일계획을 검토한다.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은 기관과 교사의 필요에 맞게 형식이나 분량이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월간, 주간과 일일계획을 모두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유아의 경험을 미리 조직하기보다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유아의 놀이는 교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고 교사의 기대 이상으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놀이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하기는 어렵다. 교사는 매일 진행된 유아의 놀이를 기록하고 다음 날 지원할 내용을 간단히 계획할 수 있다. 매주 혹은 유아의 놀이 주제에 맞추어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계획안의 양식과 내용, 작성주기는 각 기관의 실정과 철학, 학급의 상황 및 교사의 신념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3

기관이나 교사의 실정에 맞게 계획안의 형식을 변경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을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계획안에 생활주제, 소주제, 일과 중의 시간 배치, 누리과정 5개 영역이나 목표, 활동 개요, 준비물 등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관에 따라서 계획안이라는 문서에 실행과 평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계획, 기록, 평가를 통합한 양식을 놀이기록과 평가, ○○반 놀이 이야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를 수도 있다.

〈제Ⅳ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놀이실행 및 지원을 기록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p. 108)
- 두 개의 놀이 주제를 반영한 월간교육계획안의 예(p. 120)
- 실행된 교육과정과 예상 놀이주제를 기록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p. 132)

2. 일과 구성하기

교실에서의 하루는 유아의 놀이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그리고 활동으로 구성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 일과에는 놀이 외에도 등원과 하원, 간식과 점심, 손 씻기와 화장실 다녀오기, 안전에 대한 지도 등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도 포함된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활동도 계획할 수 있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일과는 교사가 미리 계획할 수 있지만 유아와 의논하여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날씨의 변화나 놀이에 대한 흥미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구성에 대한 고민

“ 일일계획안에 맞추어 운영하려니 놀이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과 중 간식이나 점심처럼 꼭 해야 하는 일상생활이 있고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 있는데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일상생활과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지 고민이 돼요. ”

1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한다.

바깥놀이를 포함한 놀이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면서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놀이의 흐름을 중단했을 때 중요한 배움의 순간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놀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깥놀이를 포함한 놀이시간은 일과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한다.

예시

놀이시간 연장하기



유아들이 배를 물에 띄워보는 놀이를 하다가 상자를 이용하여 직접 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싶어 하여 놀이시간을 계획한 시간보다 연장하였다.

2 일상생활이 융통성 있고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상생활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심신의 건강을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편안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편성하고 운영한다. 유아들은 놀이와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기본생활습관, 안전, 인성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교사는 유아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주어 유아가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놀이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하여 유아의 기본적인 요구를 방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 운영방법, 일과 중 시간 배치 등의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식이나 화장실 다녀오기 등의 일상생활은 놀이시간과 분리되어 일어나기도 하지만 놀이를 하는 과정에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놀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유아와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다.

예시

일상생활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책상을 식당의 테이블처럼 꾸미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서 식당놀이처럼 즐겁게 점심을 먹었다.



교사가 신발 넣을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넣고 싶은 자리를 스스로 매일 바꿔서 정했다.

3

놀이와 연결하여 활동을 운영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야기 나누기, 노래, 동화, 게임 등 적절한 유형의 활동을 연결하여 운영한다. 활동은 교사가 계획하여 제안할 수도 있고,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할 수도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는 학급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소집단의 유아가 될 수도 있다. 일과 중 활동 시간은 교사가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놀이의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면 놀이 중간에 잠깐 모여서 활동을 실시하고 다시 놀이로 연결할 수 있다.

교사는 활동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유아의 흥미와 놀이진행 상황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변경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활동의 내용은 놀이를 지원하거나 놀이 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활동의 방법 또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그림자 인형으로 놀이하면서 만들어진 극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학급 전체가 함께 모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놀이하면서 그림책을 밟거나 던지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잠시 모여서 책을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였다.

4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과를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과의 순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는 전날의 놀이 흐름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날의 일과를 다른 순서로 조직할 수 있다. 다른 연령과 놀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과를 조정할 수도 있고 날씨나 자연현상에 따른 관심을 놀이에 반영하기 위해 일과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일과의 융통성 있는 운영은 유아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경험을 구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유아와 함께 일과를 평가하고 다음 날의 일과 중 일부를 유아 스

스로 정해보게 하는 것, 일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유아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것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예시

날씨의 변화에 따라 일과계획 변경하기



등원 후에는 실내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일과 계획이었지만, 등원 길에 비를 맞은 유아들이 빗소리에 관심을 보여서 산책을 나가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산책 경험이 교실에서 비 오는 날을 상상하는 놀이로 표현되어 간식 후의 놀이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제Ⅳ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과를 조정한 사례(p. 93, p. 107, p. 144, p. 155)
- 유아의 흥미에 기반하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놀이를 지원한 사례(p. 118, p. 127, p. 142-143)

02

교수·학습 실천하기



교수·학습의 실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재를 구현할지에 대한 것이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유아의 흥미와 관심, 개별 특성을 존중하며 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자료와 시간을 조직하고 상호작용에 변화를 줄 것을 기대한다. 이 장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한다.

1. 놀이공간

교사는 유아가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놀이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자율성을 가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환경으로서의 공간은 실내와 실외 공간 또는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밖의 지역사회 공간까지 포함한다. 유아들이 살아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리적인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내부에서 살아가는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 장소이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하나의 공간을 자신들의 놀이에 적합한 공간으로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놀이할 공간을 스스로 찾아내거나 만들기도 하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새로운 놀이로

확장하기도 한다.

교사는 새로운 교실이나 보육실의 실내 놀이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실외 놀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실에 기존의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의 원아 수, 성별의 비율, 유아들의 전반적인 놀이 성향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판단해보아야 한다. 학기 초에는 놀이자료를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해지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한번 정한 영역을 한 학기 내내 고정하지 않고 놀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재배치해주려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실내외 전체공간을 놀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역 구성에 대한 고민



“ 교실은 좁은데 흥미영역을 모두 배치하고, 영역마다 교구장에 책상까지 넣다보니 교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좁아서 조금만 놀다보면 유아끼리 서로 부딪치거나 구성물을 부수게 되는 등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좁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분산해야 해서 영역별로 놀이할 수 있는 유아의 수와 시간을 제한할 때도 있었습니다. 놀이가 재미있을수록 아쉬움도 큼니다. ”

1

놀이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해본다.

교사는 기관의 교육 철학이나 교실의 물리적 구조, 유아의 연령, 흥미 등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교실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교실 내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흥미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융통성 있게 구성한다.

유아의 놀이에 따라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분리된 작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영역의 크기는 무조건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흥미와 놀이흐름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즉, 확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구석진 곳이나 조용한 곳에 옮겨주기도 하고, 놀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주기도 하는 등 자율성을 발휘해본다.

예시

영역의 경계 허물어보기



교실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고정해 두지 않고 유아의 놀이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놀이하였다.

2 놀이하는 공간을 넓혀본다.

지나치게 많은 놀잇감, 교구장, 책상과 의자로 가득 찬 교실은 정작 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흥미영역을 배치하고 놀이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공간이 좁아 놀이 결과물을 즉시 치워야한다면 놀이의 흐름이 중단될 수 있다.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좁은 공간이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판단되었거나, 유아가 놀이공간을 넓히고 싶다고 스스로 요구하였을 때, 교사는 놀이를 방해하는 가구와 설비를 치우거나, 유아에게 관심이 적은 놀잇감을 제거함으로써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때 교실에서 꺼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기관 내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동료 교원들과 의논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놀이공간을 확장한다.

예시

공간 비우고 채우기



유아들과 의논하여 관심이 적은 일부 놀이자료와 책상을 교실 밖 공간으로 옮겨 교실의 놀이공간을 넓혀보았다. 교실(왼쪽)은 좀 더 넓어지고 각 반이 서로 연결되는 공유 공간(오른쪽)은 다른 연령과의 만남과 새로운 놀이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교실 밖에 가구를 둘 때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비상대피로에 고정으로 설치되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유아에게 공간 배치의 주도권을 주어본다.

놀이공간은 모든 구성원의 삶이 반영되는 곳이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교실의 소유권이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아 스스로 놀이공간을 배치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원하다 보면 유아도 교실이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만 어떤 유아는 조용한 혼자만의 놀이공간이 필요하거나 공간구성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으므로 다수와 개인의 놀이가 고루 존중되는 교실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다.

예시

원하는 놀이공간 만들기

유아들이 스스로 자료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필요 없는 책상을 치워 원하는 놀이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안전시설로만 존재했던 난간에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 길을 만드는 놀이를 함으로써 새로운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4 다른 놀이공간을 찾아본다.

유아는 스스로 찾아낸 공간, 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공간을 더 좋아하고 애착을 갖는다. 교사는 교실이나 실외 놀이터 외에 복도, 현관 입구, 교실과 교실 사이의 공유 공간, 계단 밑 등도 안전하다면 유아의 놀이공간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단, 교사는 각 공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치우거나 안전하게 처리한 후 유아와 함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방법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의논한다. 비상구나 비상계단 등 비상 시 대피경로에 놀잇감이나 자료장을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시

실내 공유공간에서 일어난 놀이



계단이나 강당 등의 공간은 이동 및 공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아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특별한 놀이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예시

실외 공간에서 일어난 놀이



교실에서 보던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보기 위해 돛자리를 깔아 실외에 또 다른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제 IV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유아의 의견에 따라 교실 이외의 새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한 사례(p. 104, p. 138, p. 157)
-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교실 내 놀이영역을 변화한 사례(p. 118, p. 154)

2. 놀이자료

유아에게 자료는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상하는 매개이다. 유아는 다양한 놀이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탐색, 심미적인 경험,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자료에 더하여 유아가 매일 마주치게 되는 일상의 사물들,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등 모든 것이 자료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OHP나 조명기구, 다양한 디지털 매체 등은 유아의 놀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놀이방법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목표를 가진 자료를 교사가 제공하더라도 유아는 다른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다. 유아의 배움은 이미 만들어진 놀잇감과 놀이방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제공한 놀잇감일지라도 자신만의 탐색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배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가 어떤 자료에 흥미를 갖고 탐색하고자 하며 놀이를 통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때 이를 수용해주어야 한다. 유아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하지 않는 한 모든 자료가 놀이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를 함께 실현하려는 열린 마음과 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에 대한 고민

“유아를 위해 놀이를 계획하고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사용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아이들은 소개한 방법대로 놀이하지 않고, 놀이를 시작한 아이들도 잠시 가지고 놀다 다시 찾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아쉬웠습니다. 유아들이 오래 갖고 놀 자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자료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제시해야 효과적인지 고민이 됩니다.”

1 유아가 결정한 자료활용 방법을 격려한다.

교사가 새로운 자료를 내어 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도나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유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교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어떤 자료는 단순한 탐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놀이 속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교사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한 활동으로 이끌기보다 자료가 어떻게 놀이의 매개가 되는지 지켜보고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방법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한다.

예시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놀기



교사는 집 꾸미는 자료로 천을 제공했는데 유아는 옷으로 입고 패션쇼 놀이하는데 사용했다.



수세기 놀이자료 중 일부인 과일모형을 쌓기놀이에 가지고 와서 동물의 먹이로 놀이했다.

2

자연물이나 자연현상도 자료가 될 수 있다.

유아는 바깥놀이를 하거나 주변의 숲을 산책하면서 곤충, 풀, 꽃 등의 자연물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으면서 발견의 즐거움,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느낀다. 유아는 자연물로 놀이하는 과정에서 색, 모양, 선, 질감과 같은 자연물의 속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 생명의 존귀함 등을 스스로 배운다. 빛과 그림자, 눈, 비, 구름 등과 같은 자연현상도 놀이의 매개 또는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은 매일의 삶 속에서 탐색, 관찰, 몰입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도록 매개하는 자료이다.

예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기



마른 지렁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자연현상과 자연물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유아들이 밖에서 그림자를 발견하고 흥미를 보이며 그림자 만들기, 그림자 밟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비오는 날 자연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흙, 풀 등의 자연물의 속성이 변화하였고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였다.



주변에 깔린 돌은 다양한 색깔, 모양, 질감, 무게와 크기의 속성을 가진 좋은 놀이자료가 되었다.

3 다양한 일상의 사물을 놀이자료로 활용한다.

놀이방법이 정형화되어있는 상업적인 놀잇감보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사물이 유아의 놀이를 더 풍부하게 해 주기도 한다. 유아는 일상의 물건을 놀이 자료로 사용하면서 본래의 용도 외에 물질의 고유한 특성과 형태, 색, 질감 등 감각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교사는 상품화되거나 정형화된 놀잇감 이외에 다양한 열린 자료를 지원하도록 한다.

예시

재활용품으로 놀이하기



만들기 재료로 재활용품을 제공했을 때, 유아들이 쌓기놀이에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였다.



기존의 놀잇감과 휴지속심 등 재활용 자료를 함께 사용하며 놀이하였다.

유아들은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어 놀이에 활용하였다.

4 자료가 없어도 놀이할 수 있다.

유아는 몸으로 주변 세계를 알아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실외로 나가면 유아는 놀잇감이 없어도 자신의 몸으로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유아와 만나 몸을 이용해 함께 하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실내에서도 유아의 신체 움직임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율동 및 대근육 시간에만 허용하지 말고 유아의 몸 움직임에서 놀이성을 찾아 지원한다.

예시

몸으로 놀아보기



놀잇감이 없어도 대문놀이 하나만으로도 신나게 놀이했다.



햇살 좋은 날 신나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놀이는 시작될 수 있다.



유아들은 앉아서 움직이며 술래잡기 놀이를 제 안하였고 학급 전체의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실내 강당에서 특별한 놀이기구 없이 편을 나누어 꼬리잡기 놀이를 하였다.

5 기존의 자료도 새롭게 활용해본다.

기존에 사용하던 생활주제 관련 놀이자료를 모두 새로운 자료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흥미영역별, 생활주제별 자료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놀이자료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유아가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하는 것을 허용하고 격려한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주제를 미리 정해두고 놀이자료도 주제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그러므로 자료를 흥미영역이나 생활주제 또는 연령별로 분류하는 기존의 보관방법을 놀이자료별로 분류하는 등 좀 더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로 놀이하기



안전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자료를 가지고 유아들이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고 있다.

〈제Ⅳ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유아가 요구한 자료 또는 유아의 흥미에 주목하여 놀이자료를 제공한 사례(p. 104, p. 114, p. 128, p. 145, p. 152)
- 교사가 제공한 놀이자료가 진행 중인 놀이뿐 아니라 새로운 놀이도 지원한 사례(p. 91, p. 153)

3. 상호작용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 유아, 교사,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사물과 현상, 관계에 대해 배운다.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 작용은 놀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유아는 서로 놀이를 제안하거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교사는 이러한 유아의 유능함을 신뢰하면서 유아와 유아 간 관계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자유로운 놀이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간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은 놀이의 시작과 지속, 새로운 놀이로의 전이와 확장, 마무리 등 놀이의 흐름을 관찰하고 유아의 흥미와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 기반해야 한다.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비언어적, 언어적 소통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는 관찰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함께 참여하기, 정서 지원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놀이를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의 상호작용은 놀이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거나 놀이의 방해요소를 제거해줌으로써 유아의 놀이에서 5개 영역의 내용에 해당하는 충분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앞의 놀이공간, 놀이자료, 일과운영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교사는 유아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유아들이 선택한 모든 놀이공간과 놀이환경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

“ 몇몇 놀이에서 유아들 간에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유아들이 자기의 생각을 각자 주장하여 놀이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아들이 재미있게 놀이하도록 돕고 싶은데, 이럴 때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



1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교사는 유아가 누구와 놀이하는지, 어떻게 놀이하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관찰함으로써 유아의 성향, 사회적 능력, 대인 관계 등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로 혼자만 노는 유아, 같은 친구와만 노는 유아, 놀이 상대가 계속 바뀌는 유아도 있다. 유아가 놀이하면서 또래와 맺는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빈번한 갈등을 경험하는 유아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놀이를 전개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기다려주면서 개입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교사는 혼자 놀이하는 유아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놀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주도성이 높고 배움의 요소가 풍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혼자 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놀이에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배회하는 유아가 있다면, 교사는 다른 친구의 놀이를 소개해주고 관심이 있는지 유아의 의견을 물어본 후 유아와 유아 간의 관계를 지원한다.

2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놀이는 실내외 곳곳에서 산발적 혹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며, 동일한 놀이 주제나 자료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 유아마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놀이가 진행되면서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의 위치나 크기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관찰하면 유아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지 혹은 한 가지 놀이를 주로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공간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일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놀이 내용과 몰입은 유아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아가 어떻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놀이자료와 교감하는지 비교하며 관찰하면 유아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하

게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료를 반복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탐색하는 지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자료를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물체의 특성 및 물리적 법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므로 교사의 의도대로 놀이자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3 놀이 지원을 위해 관찰한다.

상호작용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무조건 유아의 놀이에 개입을 하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입보다는 유아가 놀이에서 보이는 감정의 상태, 궁금해 하는 것, 흥미를 보이고 탐색을 하는 것 등을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상호작용하기에 적절한 순간과 방법을 잘 결정하여야 한다.

예시

기다리며 지켜봐주기



교사는 유아가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만히 놀이를 관찰하며 미소, 고덕거림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켜보았다. 유아들은 놀이 중 발생하는 문제도 서로 도와가며 해결해나갔다.

4 제안하며 놀이를 지원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제안은 신중해야 한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상관없이 새로운 놀이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안하거나 교사 주도로 새로운 놀이방법으로 이끌기보다는 놀이 관찰에 기반하여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현재 진행 중인 놀이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공간, 자료, 시간 등의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제안하며, 유아가 교사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고 추후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놀이지원으로서의 제안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기반해야 하지만, 때로는 안전이나 교육적 가치에 기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놀이하면서 지켜야 하는 약속과 규칙이 있을 때,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알려주기보다 유아가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보도록 제안할 수 있다. “다른 친구에게 방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실에서 던지며 놀면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예시

유아가 규칙을 정하도록 제안하기



유아들이 놀이하면서 규칙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5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한다.

교사는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유아와 교사가 놀이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둘 사이에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일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놀이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놀이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유아의 놀이는 때로는 아이디어의 결핍이나 유아 간 상이한 요구와 의견 충돌, 공간이나 자료를 점유하기 위한 갈등 등에 의해 단절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아의 놀이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도 교사의 놀이참여는 유아들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도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놀이 중 배움을 위한 적절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기



꽃가게를 구성하는 놀이에 교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꽃을 만드는 방법을 활발하게 의논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질문하며 놀이를 지원한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끊임없이 “왜?”, “어떻게?”와 같은 내면적 질문을 만나고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놀이에 몰입한다. 교사는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보다는 유아의 생각이 유연하게 흐르도록 돕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 교사의 질문이 즐거운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유아의 사고가 확장되고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니?”, “어떻게 할 거니?”와 같이 교사가 기대하는 답을 염두에 둔 질문보다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무겁진 않을까?”와 같이 유아와 능동적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질문은 유아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상상을 놀이로 구현하게 하고,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예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질문하기



건물과 길을 만드는 비슷한 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공간이 부딪히는 문제가 유아들 간에 발생하였다. 교사는 두 놀이를 연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두 동네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동네를 만들려면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였다.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더 많은 수의 유아들이 참여하여 도시를 함께 구성하는 놀이로 진행되었다.

7

정서적으로 지원해준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미소, 끄덕거림, 공감하는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다니 놀랍구나.”와 같은 감탄, “큰 것부터 쌓는구나. 그래,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와 같은 격려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도 유아의 정서를 지원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유아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새로운 놀이를 좀 더 주도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교사는 동시에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좌절감, 걱정,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교사는 유아의 정서를 인지하고 위안, 격려 등을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스스로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 IV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놀이상황과 관련하여 교사가 적절한 질문 및 방법을 제안한 사례(p. 90, p. 93-94, p. 107, p. 126, p. 128, p. 130, p. 141, p. 153)
- 유아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공감하고 반응해주면서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지원한 사례(p. 91-92, p. 129, p. 142, p. 154)
- 놀이 참여자가 되어 함께 놀이한 사례(p. 94, p. 117, p. 131)

4. 놀이와 안전

놀이 중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 과격하게 부딪치는 거친 신체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유아는 위험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놀잇감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여지가 생기기도 한다.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항의하는 학부모,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교육, 기관 평가에 포함되어있는 안전 항목 등은 교사가 위험요소가 포함된 놀이를 허락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 교사는 안전한 놀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유아 스스로 놀이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어떻게 안전하게 놀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하고 놀이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정해 본다.

놀이와 안전에 대한 고민

“ 자유로운 놀이공간이란 일상 속 다양한 자료를 유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간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하다 아이들이 다친다면?’ 선생님은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다친 아이에게 흉이라도 질까 속상해하시는 학부모님, 질책하는 듯한 원장님,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자책과 다친 유아에 대한 미안함.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놀이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됩니다. ”

1 안전이라는 이유로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했는지 검토해본다.

교사는 위험 요소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하지만, 한 번 정한 놀이규칙을 고수하기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험요소가 있는 놀이상황에 대해 교사는 무조건 어떤 놀이를 금지하기보다 왜 그 놀이가 위험할 수 있는지 유아들과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놀이자료나 일상적 사물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물건으로 높이 쌓는 놀이를 허용해보고, 공구나 요리용 도구를 주의하면서 사용해보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정교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예시

놀이규칙 바꾸어 보기



어깨만큼만 쌓도록 하던 규칙을 버리고 종이벽돌블록을 매우 높이 쌓아보고 싶어 하는 유아의 생각대로 해보게 했다. 블록이 무너질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토의하였다.

의자의 균형이 무너질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토의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유아들은 의자를 뒤집어 경사로의 받침대로 사용하며 놀이하였다.

2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어본다.

교사는 일상적 사물이나 자연물을 유아의 놀이자료로 허용할 때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교사가 조심할 부분에 대해 유아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고, 유아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도 새로운 놀이공간과 놀이자료를 충분히 탐색하여 위험 요소를 찾아보고 조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풍부한 놀이경험 및 안전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물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유아는 스스로 조심할 부분을 더 잘 판단하게 된다.

예시

기회를 주며 기다려주기



목공놀이 도구를 사용하던 유아들이 실제 자료를 사용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유아에게 안전 규칙을 설명해주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니 충분히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게 되었다.

3

새로 찾아본 놀이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해본다.

유아나 교사가 새로운 놀이공간을 발견했을 때 그 공간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균열이나 위생 등의 문제가 있는지 교사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유아가 그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공간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약속을 정하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그 공간뿐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공간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

예시

숨은 공간 찾아 안전하게 놀이하기



유아들은 책상 밑, 교실 밖 테라스 등의 놀이공간을 스스로 찾아내었다. 처음에는 부딪힘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이 우려가 되었지만 유아들은 조심해서 걷기 등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며 놀이했다.

4 모든 구성원이 놀이와 안전에 대해 소통한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가 최소한의 규칙을 가지고 자유롭게 즐겁게 놀이하면서 안전이 보장되려면 기관 내 구성원 간의 안전에 대한 공감의 필요하다. 기관 내 소통이 우선 되어야 학부모에게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확실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잘 이해시킬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가 놀이를 통하여 환경을 탐색하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와 소통하여야 한다. 학기 초부터 학부모교육이나 가정통신문, 교육 자료를 통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놀이와 안전에 대한 기관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으면 교사의 자율적인 학급운영에 대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

예시

숨어 있는 공간 찾아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사들의 이야기>

안전과 관련한 교사들의 회의에서 논의의 귀결은 학부모님들과의 공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부딪치거나 긁힐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에 학부모님들도 공감해주시면 교사들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 규칙을 허물고 허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고민을 들은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과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와 관련한 기관의 교육 철학을 나누시며,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조절하게 하면 초기에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일부 거치겠지만 이후 위험요인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습득하면서 오히려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Ⅳ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개방된 공간에서 놀이공간을 이탈하는 유아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놀이하도록 한 사례 (p. 89)
-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놀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준 사례(p. 139)

5.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지원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개별 유아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움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실정에 따라 특수학급(반) 또는 통합학급(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사(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IEP)을 수립하여 장애 유아가 가진 각기 다른 개별적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장애 정도와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교육내용을 구성하며,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지원한다.

통합학급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개별화 교육 교수학습방법과 놀이 중심 교수학습방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하여야 한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통합학급에서는 미리 계획된 주제 중심 활동이 축소되므로 특수교사는 장애 유아가 일반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도록 돕기 위해서 학급 전체의 놀이 흐름을 파악하여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교사는 발달지연이나 장애 유아가 보편적인 환경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더불어 생활하고 놀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세심한 관찰과 이에 따른 통합 놀이지원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합학급에서의 장애 유아 지원에 대한 고민

“ 지금까지는 주안이나 일안에 교육과정수정 전략을 추가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일과에 따라 장애 유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왔습니다. 유아 주도적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사전 계획보다는 유아의 놀이흐름에 따라 교사가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교수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

1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한다.

모든 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며 장애 유아도 예외는 아니다. 유아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놀이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다면 교사는 이를 적절히 지원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장애 유아가 선택한 놀이자료와 놀이방법으로 놀이를 시작하도록 허용해주고 일반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놀이하도록 제안해볼 수 있다. 장애 유아를 위한 개별 활동을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해보거나 장애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전체 유아의 놀이로 확장하도록 제안하고 또래들로부터 놀이 아이디어를 구할 수도 있다.

교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래는 장애 유아에게 적절한 행동의 시범자이자 촉진자이며 활동 참여에 대한 강화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유아에 대한 관찰자이자 정보 제공자로서 교사의 놀이관찰을 보완해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 유아와 또래 간의 놀이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한다.

예시

모두 함께 잡기놀이 하기



실내 강당에서 놀이하던 중 장애 유아가 “나 잡아봐라!”하며 다른 유아들에게 놀이를 먼저 제안했다. 또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개입하여 함께 잡기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두 함께 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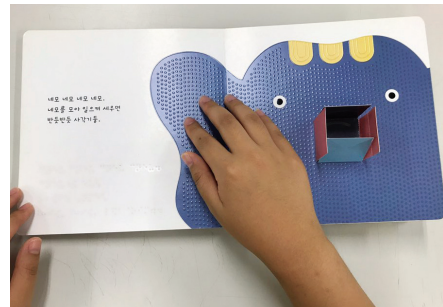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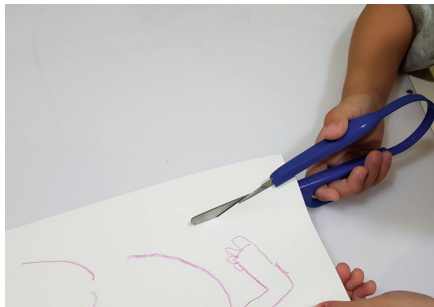
2

놀이공간과 자료를 준비할 때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다.

통합학급에서 놀이공간과 자료를 계획하거나 일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공간, 자료, 일과 구성 등에서 계획이 변경될 때 장애 유아에게 불편함이 없을지 점검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할 때 보행 위커를 사용하는 장애 유아가 있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대가 설치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근육 힘이 부족한 장애 유아를 위해서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감각교구나 적은 힘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자료를 함께 제공해주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다.

예시

유아의 장애를 고려하여 놀이자료 비치하기



지체장애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위와 시각장애 유아를 위한 양각책을 비치하여 스스로 놀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유아를 위한 자료지만 다른 유아들도 흥미롭게 활용하면서 놀이가 더 활발해졌다.

3

수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각자의 교수접근 및 전문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교수실천 과정에서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이전에는 통합학급교사가 작성한 계획안에 특수교사가 장애 유아를 위한 수정전략을 추가하고 계획된 활동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유아·놀이 중심으로 일과를 운영하게 되면 즉석에서 전개되는 놀이 상황에서 장애 유아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지원방안에 대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각자가 관찰한 유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교사들은 정규회의 외에 짧은 시간 동안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특수교사가 보지 못한 놀이관찰 내용을 공유하거나 유아의 장애특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지원방안을 찾는 데 서로 도움을 준다. 유아의 놀이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큰 틀에서 협의한 후 놀이 진행 양상에 따라 수시로 협의하며 수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협의는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를 구분하기보다 전반적인 놀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의의 연장선이 된다.

예시

수시로 협의하기



정규회의뿐 아니라 교실 안팎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두 교사 모두 놀이 안에서 장애 유아를 능숙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유아들의 놀이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놀이 이해도 풍부해졌다.

〈제Ⅳ부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에 소개되어 있다.

- 일반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진행 중 장애 유아를 위한 자료 제공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 유아의 놀이참여를 지원한 사례(p. 156)

03

평가하기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기관 및 학급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평가 역시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관찰과 기록, 수집, 부모 설문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유아와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

교육과정은 유아의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유아의 놀이와 일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교사는 특히 유아의 놀이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이때, 평가자료의 수집과 기록 때문에 교사가 유아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교사는 많이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유아관찰기록 중 유아 이해 및 놀이지원에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고, 기록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덜 드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가자료 수집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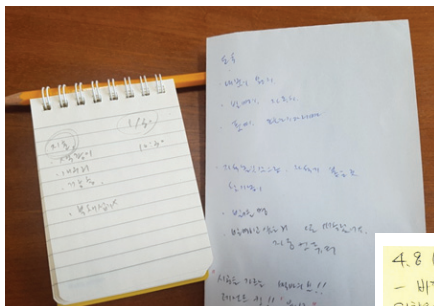
“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면서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이를 지원하면서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아들의 놀이는 동시다발적이면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한 놀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록해 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1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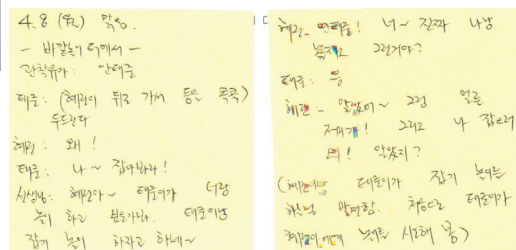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일과를 관찰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일과 중 관찰한 내용을 메모지에 핵심 단어 위주로 짧게 기록을 남기고 일과 후 상세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이때 짧은 메모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유아명, 시간, 장소, 상황, 관련 누리과정 내용 등을 수기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 혹은 일일계획안의 평가란이나 일지 양식을 변형하여 관찰 및 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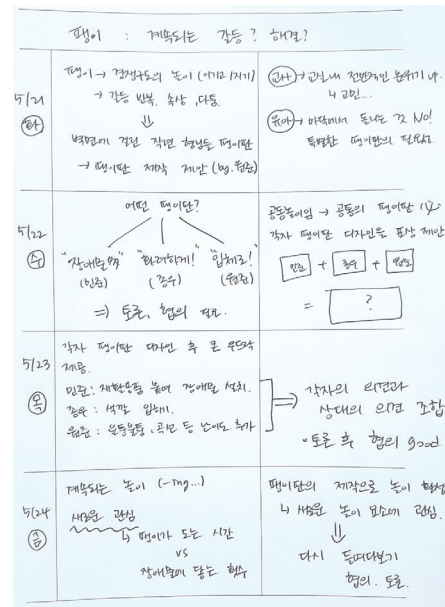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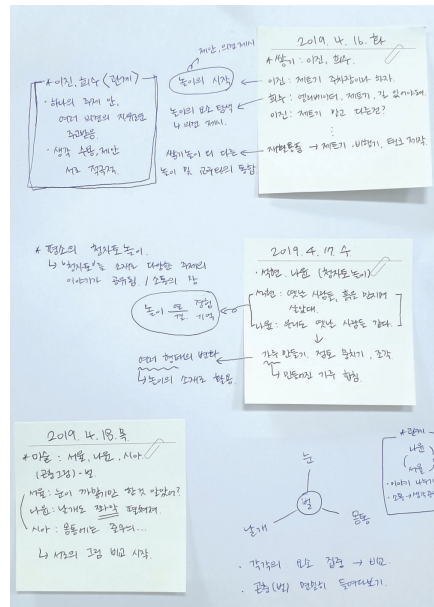
예시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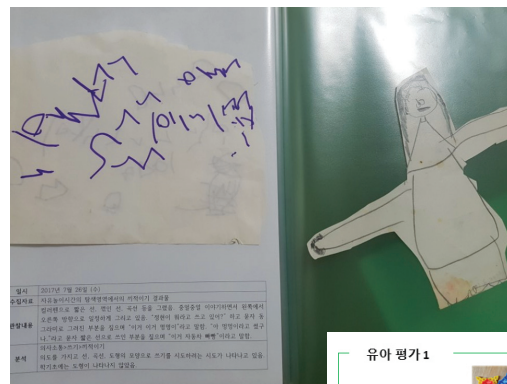


관찰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지에 기록하였다.





간략히 기록한 메모내용을 바탕으로 추후에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유아 평가 1



북편의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북편 핑이를 만들어 놓으면 중에 다 사용한 점로 두껍게 전기테이프를 붙여 돌려보기를 반복한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것봐, 점토 두껍으로 만들었어. 잘들어가지?” 라고 말한 후 빈북해서 여러 번 돌려본 후 이번에는 연두색과 노랑색 종이테이프를 번갈아 보더니 노랑색 테이프를 집어 넣었다.

교사가 노랑색 테이프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그냥... 더 잘 보일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한 손바닥으로 두껍을 감싸며 잡고 돌려보고, 한 손바닥을 모아 돌려보기도 하며 여러가지 색의 혼합에 관심을 가지며 놀아 한다.

- 다양한 색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음
- 혼합색의 표현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팽이의 움직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임

유아의 작품과 구성물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사후에 기록하였다.

2.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기

평가는 유아 평가와 누리과정 운영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아 평가는 유아의 고유한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운영 평가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연계되어 유아에게 의미 있는 통합적 경험의 내용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유아평가와 누리과정 운영 평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수집한 자료의 활용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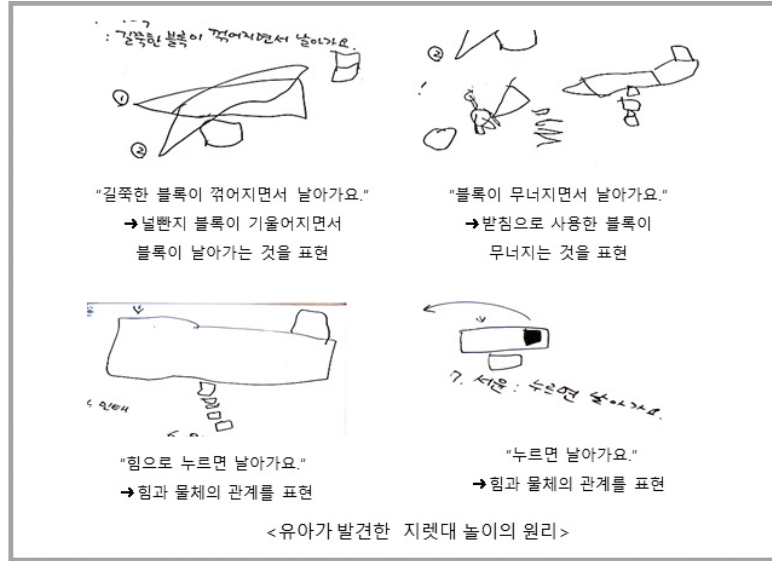
“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의 계획보다는 유아의 경험과 흥미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그날 유아 반응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놀이에 대한 기록을 통해 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준에 의해 교육과정이 잘 운영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

1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유아 평가는 일상생활 및 놀이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아의 놀이에 대한 기록(예: 계획안 또는 일지에 기록한 유아들의 실제 놀이 모습, 유아의 놀이 결과물, 작품,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유아의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이 놀이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살펴본 후 이를 추후 놀이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놀이과정에서 유아가 표상한 그림에 기반하여 유아 이해하기



놀이를 관찰하며 수집한 유아의 활동 결과물을 평가에 활용하여 추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2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교사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과 학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누리과정 운영 평가는 일과 구성이 적절하였는지, 일상생활이나 활동이 놀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놀이를 통해 어떤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에 대해 반성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교사는 학급 내 놀이의 내용, 놀이를 통해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아들의 배움과 참여 등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교육과정 개선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예시

유아 놀이관찰 내용과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함께 기록한 예

일시	년 월 주
유아 놀이관찰 내용	 #주현이가 봉나물로 가방을 만들었다. 서진: 이거 가방! 가방이야 가방! 서진이 거야. 주현: 서진아 너도 만들래? 주현이가 서진이에게 지퍼백을 준다. 서진이가 가방 만들기를 어려워하자 주현이, 교사가 도움을 주어 완성한다. 가방이 완성되자 서진이는 주현이에게 가방을 보여준다. 교사: 이거 가방이야. 서진: 이거 가방이야. 교사는 서진이가 주현이에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리과정 운영 평가	• 친구의 놀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장애유아를 관찰 하던 중,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의 놀이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긍정적인 통합놀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장애 유아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신체적 촉진, 언어적 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놀이 지원을 하였음 • 놀이전반에서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놀이가 즐겁게 이루어졌으며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모방하여 표현하는 장애 유아를 관찰할 수 있었음 • 바깥놀이에서 할 수 있는 통합활동을 계획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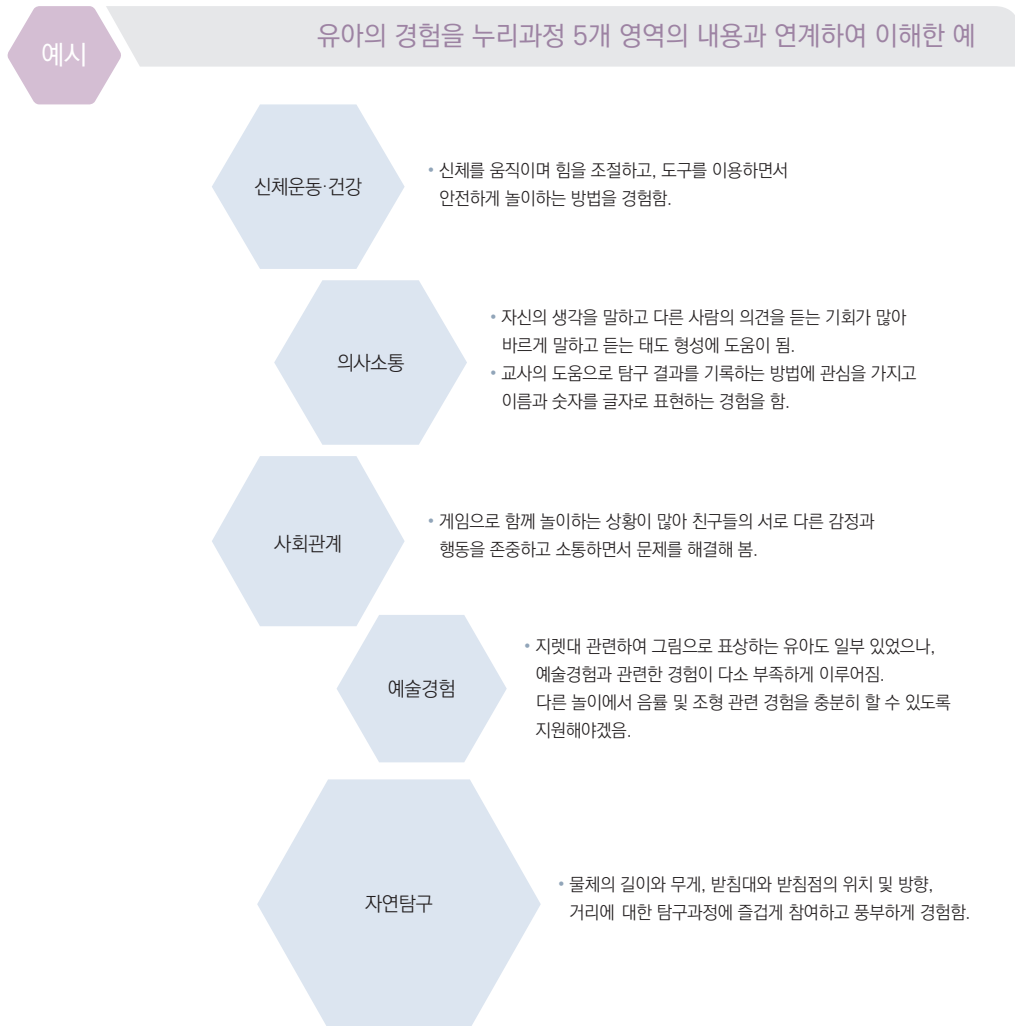
유아 놀이관찰을 토대로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놀이 사례 6, p.160)

3

놀이에서 누리과정 5개 영역을 경험하였는지 돌아본다.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은 유아가 놀이를 통하여 경험해야 할 내용이므로 교사는 놀이상황에서 5개 영역과 관련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계할 수 있다. 이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유아가 달성해야 할 성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다. 매일 일과를 5개 영역에 따라 연계할 필요는 없다. 일과(놀이, 일상

생활, 활동) 후 혹은 하나의 놀이흐름이 마무리 되었을 때 5개 영역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검토하고 지원을 계획해볼 수 있다.



놀이가 마무리된 후 5개 영역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록할 수 있다. (놀이사례 5, p.147)

III

협력자로서의 교사



1.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2.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기
3. 지역지원체계와 함께하기

01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교사는 유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주체이자 유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교사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면서 경험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기관의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유아·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읽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교육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공동체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며, 교육적 성찰과 실행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료 교원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민

“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교사인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 부담되고 걱정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관찰하고 지원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놀이가 생성되고 계획과는 다른 방법으로 놀이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연령의 옆 반 교사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 놀이인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놀이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동료 선생님의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놀이 운영 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 놀이 지원을 하면서도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

1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비전을 만들어본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원장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된 교육 비전이 실제 유아의 놀이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원장이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된 교육적 가치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장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시

기관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비전 만들고 공유하기



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비전을 만들어보았다. 우선 우리 기관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가치를 각자 메모한 뒤 메모지를 모아서 유목화하고, 선정된 가치를 중심으로 합의된 비전을 만들어보았다. 비전 공유의 중요성과 선정된 비전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인간상을 담고 있는지,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교육 방향을 결정하고 공유하는 데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의미 있고 보람된 경험이었다.

2 학습공동체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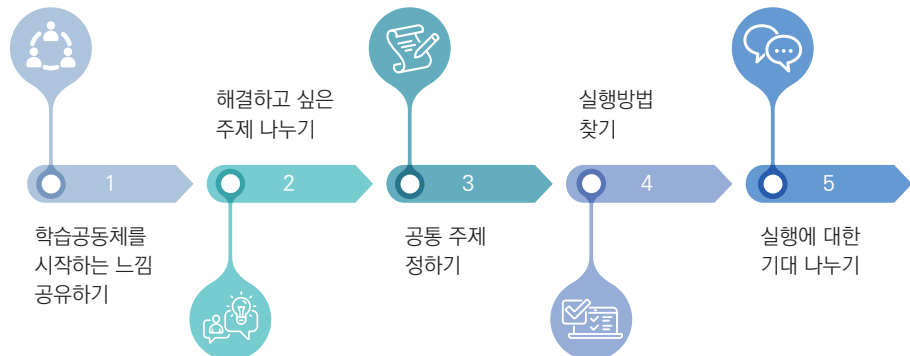
학습공동체는 목적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동일연령 학급의 교사 및 여러 연령 학급의 교사, 원장과 원감, 특수교사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기관 내에서의 운영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가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습공동체가 구성되면 정기적으로 혹은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수도 있다. 모임의 주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놀이지원과 관련한 고민 및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자체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습공동체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용적 분위기와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예시

기관 내 학습공동체 시작하기

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서로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함께 협의할 공동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학습공동체의 주제와 일정 등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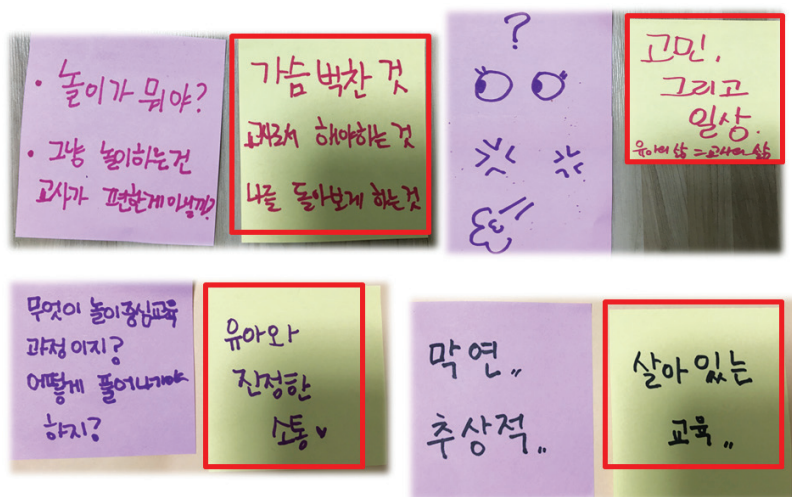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사들이 의논하고 싶은 주제는 ‘교실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놀이가 이루어질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들의 놀이관찰과 지원이 중요한데 계획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가 중심이 되어 놀이가 이루어지는데 계획안이 의미가 있는 걸까?’,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 이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등이었다.

예시

기관 내 학습공동체를 통해 놀이에 대한 생각의 변화 경험하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처음 접한 교사들이 생각한 놀이에 대한 첫 이미지는 ‘주도성, 재미,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놀이를 실천해가면서 교사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딜레마’ 또는 ‘눈치 보기’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담긴 새로운 단어로 놀이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유아의 놀이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에 대한 틀 깨기로 인한 유아들의 지나친 흥분과 소란 등이 타 학급 교사와 원장 그리고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라는 교사의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것이었다.



학습공동체는 바로 위와 같은 교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처음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접했을 때 느꼈던 막연함과 혼란스러움, 걱정 등을 지속적인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점차 교사는 놀이 실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처음 가졌던 놀이에 대한 추상적 생각을 ‘유아와 진정한 소통’, ‘설렘, 흥분, 기대감’ 과 ‘살아있는 교육’ 등으로 바뀌어있으며 놀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시

여러 기관의 교사들이 모여 학습공동체 운영하기



한 두 학급만 있는 소규모 기관의 교사들이 인근 기관의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정기적인 학습공동체의 날을 정하여 현재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유아 놀이지원을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역할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았다.

〈교사의 역할 성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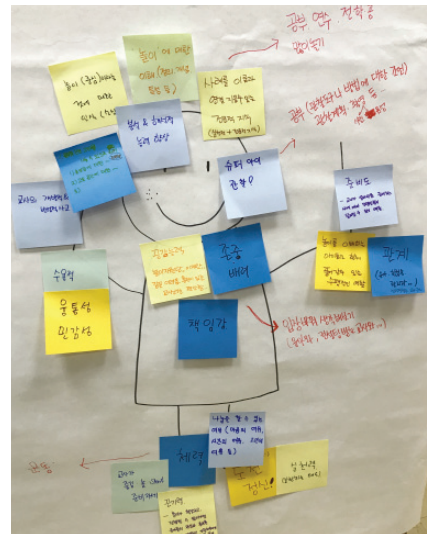


저는 매일
유아들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문제상황이 생기면 유아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심판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부장교사다보니
항상 앞서서
해야 할 일들과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부감감이 있어요

〈놀이지원을 위한 교사역할〉



사례를 이론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관찰과 분석능력, 공감하기, 융통성과 민감성, 실천을 위한 도전정신 그리고 체력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누었다.

02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기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특히 학부모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는 누리과정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 교사와 학부모가 놀이에 대한 관점을 공유할수록 유아를 더 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가 놀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그들이 능동적으로 교육과정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아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유아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유아의 놀이와 경험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기에 대한 고민

“학부모님들은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시지만 기관에서 하는 놀이가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관에서 놀기만 한다고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기관에서 충분히 놀이하고, 놀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놀이 이해를 돕는 학부모 모임을 구성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놀이 중심 철학의 실현은 기관과 학부모가 놀이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내용의 학부모 교육보다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놀이에 초점을 맞춰 학부모 소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교육적 관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지원을 위해 놀이참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관점을 일시에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놀이의 교육적 의미 이해를 위한 학부모 소모임 운영하기



놀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했다. 자녀의 놀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놀이의 의미를 공유하거나 토론을 통하여 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놀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시

학부모가 놀이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녀가 평소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직접 놀이하는 경험을 해보았다. 이러한 놀이 체험을 통하여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이 아이들의 놀이 모습과 놀이의 교육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집에서 아이가 블록놀이를 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불편했는데 막상 놀이해보니 소란스러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아이들이 풀보다 테이프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알겠어요.”

“함께 놀이하다보니 다른 사람의 놀이방식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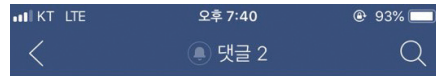
“또 함께 만들다 보니 웃음이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어요.”

2 학부모와 소통하며 놀이 정보를 공유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등 종이로 된 형식적인 문서 이외에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에 대해 의사소통한다.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전시하거나 반복되는 일과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놀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놀이를 통한 경험과 배움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기



푸른나무 김가혜엄마
2019.06.07

[첫댓글] 가혜가 데리러가면 그날 놀이한 활동 신나게 얘기해줘요 너무 재있는지 집에서 쓸만한 용품이나 폐품 보면 갖고가도되나고 행기고 가혜가 갖고가고싶은건 '뭐든 챙겨가' 하면 신나서 눈이 반짝거리더라구요 덕분에 엄마도 뭘 버리기전에 쓸만한 물건인지 갖고갈건지 물어보게되요 나중에 애들이 커서도 뭐가 될지 꿈도 잘 심어 주시는거같아 흥미롭고! 정말 감사해요

푸른나무 강연아 선생님
2019.06.07

우리 가혜가 가져오는 구급상자로 푸른나무반 병원놀이가 오늘까지도 지속 되고 있어요 ~ 감사드립니다. 어떤 놀이가 시작되더라도 가혜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놀이 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어 가혜가 느끼는 성취감도 특별할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에 힘이나네요! 더 열심히 놀이할게요. ^^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도록 자주 물어주세요~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의견이 왜 부모님은 들어줄 수 없는지? 아니면 조금 미뤄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아이들이 수긍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 바깥놀이>



3 유아의 경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교사는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는 여러 공공기관, 놀이터, 과학관, 체험관, 박물관, 공원, 숲 등의 다양한 시설과 풍부한 자연환경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교사는 지역 자원을 방문하는 현장체험

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유아 경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예시

놀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지역 대학 전공학생들의 놀이연구 동아리와 협력하여 부모들이 일상용품을 이용해 자녀들의 놀잇감을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놀이 선생님이로 기관을 방문하여 교실에서 유아들과 함께 놀이함으로써 세대 간 놀이문화와 정서를 교류하였다.

03

지역지원체계와 함께하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 개별 기관의 원장과 원감뿐 아니라 지역의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도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 교사가 지역지원체계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간다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을 통해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지역지원체계와 함께 변화하기에 대한 고민

“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교육주체 간에 정말 동등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배움의 주체인 유아가 자유로운 놀이 환경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개별 기관과 학급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역할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1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실현을 위해 지역지원체계로부터 교육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청 및 시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관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컨설팅과 소그룹 워크숍 등 교사와의 소통이 상시 이루어지는 지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예시

소집단 워크숍으로 생각을 나누는 교사 연수 참여하기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는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놀이지원을 위한 판단 및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사연수 과정을 소집단 형태의 토의식으로 조직하여 시행하였다. 참여한 교사들이 조별로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여 놀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 등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았다.

예시

교육적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교사 연수 참여하기

또 다른 연수는 놀이실행에서 겪게 되는 교사의 고민과 어려움을 각자의 쪽지에 기록하게 한 다음 다른 교사에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서로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연수는 놀이를 대하는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새로운 방식의 교사연수는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식보다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교사 개개인이 지닌 교육적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적 고민을 함께 나눈 후 교사들의 이야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동지애’를 느낄 수 있어 좋았고 놀이에 대한 교사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이 사례 공유를 통하여 수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도 아이들의 생각과 선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시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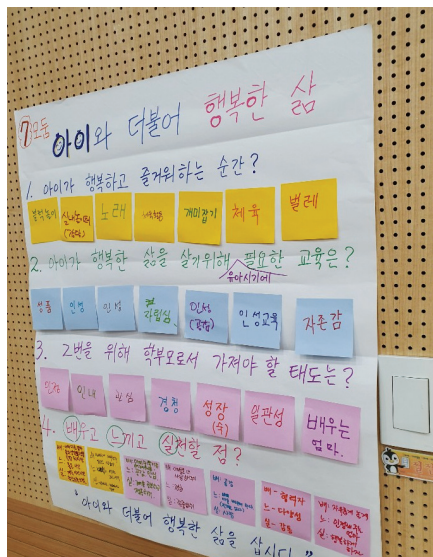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각 기관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참여를 통해 각 기관은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2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활용한다.

기관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스스로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놀이를 주제로 토론헌기, 학부모가 참여하는 워크숍 진행하기, 여러 형태의 학부모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등 다양한 방법의 학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기관은 학부모가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기관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부모교육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예시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 활용하기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시행하였다. 학부모교육은 서로 다른 기관과 지역의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주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새로운 형식의 학부모교육이었고, 참여한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들이 만든 학부모선언문〉

-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쉽게 육아를 하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 나는 경주마처럼 앞으로만 달려가지 않고 아이와 함께 쉬어가며 즐겁게 나아가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 나는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 나는 자녀교육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3 누리과정 포털이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사례 공유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개정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 포털(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포털은 다양한 놀이 실천사례 및 관련 연수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교사들은 자신이 실행한 교육과정 사례를 누리과정 포털에 등록하고 다른 교사들과 나눔으로써 우수 사례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유된 우수사례를 학습공동체에서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IV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



1.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숲 속 하루 놀이
2. 공간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3. 자료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 반짝이곤 놀이
4. 자료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흙 속에 숨은 색깔
5.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 지렛대 놀이
6. 통합 학급에서의 놀이 사례: 함께 해서 더 즐거운 놀이

“놀이지원 사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놀이의 배경	놀이 시작 배경에 대한 소개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놀이와 활동-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놀이지원과 관련하여 교사가 생각한 고민과 그에 기반한 교육적 지원의 예
교육계획안	놀이 맥락을 반영한 일일, 주간, 월간 교육계획안의 예
평가	놀이 맥락을 반영한 유아 및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예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각 놀이 사례의 교육적 지원을 요약한 것으로 지원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놀이지원 사례” 속
아이콘 이렇게 읽으세요.



놀이 공간의 변화를 통한 교사의 놀이지원



놀이 자료의 변화를 통한 교사의 놀이지원



일과의 변화를 통한 교사의 놀이지원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놀이지원



안전과 장애통합 등 교사의 기타 놀이지원



01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숲 속 하루 놀이



▣ 놀이의 배경



3세 바다반 16명의 유아들은 기관 근처에 있는 화백나무 숲에서 자주 바깥 놀이와 산책을 한다.

늘 접하는 익숙한 숲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이곳 저곳 흩어져 놀이하는 유아들은 오늘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

산책 중에 시작된 숨기 놀이

숲으로 산책을 나온 유아들은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너희 사냥꾼 알아?”
 “사냥꾼이 뭔데?”
 “사냥꾼은 뭘 잡는 사람이지.”



“나는 사냥꾼이다! 잡아라!”
 “도망쳐! 사냥꾼이 나타났다!”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유아들은 사냥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잡기놀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였다. 교사는 놀이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였다.

숲은 넓고 개방된 장소이자 위험한 사물이 존재할 수 있어 숲 속 곳곳에서 놀이하는 유아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기타(안전)

놀이

숨바꼭질 놀이하기

“여기 숨으니까 나 안 보이지?”



몇몇의 유아들은 사냥꾼 놀이를 숨바꼭질 놀이로 이어갔다.

대부분의 유아는 사냥꾼을 피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가리거나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그 뒤에 잘 숨었다.

그러나 한 명의 유아는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 숨었음을 표현하였다.

그 유아는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었고, 그 상황을 속상해 하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유아들이 곳곳에 숨는 방법을 관찰하다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숨었다고 하는 유아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며 질문하였다.

교사: (교사가 자신의 눈을 가리며) 선생님도 숨었다! 어때?

유아: 바로 보여요.

교사: 그럼 어디에 어떻게 숨어야 친구들이 바로 못 찾을까?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질문하기)

놀이

스카프 활용하여 숨기

“더 잘 보여!”



교사의 질문을 듣고 생각하던 유아는 신체활동 및 표현을 위해 교사가 가지고 나간 스카프를 활용하여 숨었다. 그 모습을 본 유아들도 따라서 스카프를 가지고 숨바꼭질을 하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신체활동 및 표현 용도로 가지고 나간 스카프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유아가 숨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존중하며,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자료의 변화
(유아가 결정한
자료 활용 방법 지지)

놀이

숨어있는 자연물 탐색하기

유아들은 사냥꾼을 피해 숨은 숲 속 곳곳에서 제각각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탐색하느라 바빴다.



“나무에 뭐가 있어.”
“움직여. 벌레인가 봐.”



“선생님 내가 이거 찾았어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야, 이리 와봐! 여기도 뭐 있다.”
“뭐야?”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사냥꾼을 피해 도망간 숲 속 곳곳에서 유아들은 여러 가지 자연물과 생물을 발견하고 교사와 다른 유아들에게 알려주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발견한 것을 사진 찍어주며 유아들의 주도적인 탐색 및 탐구를 격려하고, 발견의 기쁨을 공유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놀이

나뭇가지 탐색하기

숨바꼭질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숲을 거닐던 다른 유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발견하였다.



“이게 제일 짧고, 이게 제일 커.”
 “여기는 애기 나뭇가지만,
 여기는 어른 나뭇가지들만 있어.”
 “나뭇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생님. 우리가 나뭇가지 찾았어요!”
 “나뭇가지가 엄청 많아요.”

나뭇가지 놀이를 관찰하면서 자연탐구 영역의 배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음. 민서는 “이게 제일 짧고, 이게 제일 커.” 라고 말하면서 나뭇가지의 크기를 비교, 서열화하였음. 영수는 “~애기 나뭇가지~ 어른 나뭇가지~” 라고 말하면서 나뭇가지를 자신의 기준으로 분류해보았음. 규민이는 나뭇가지의 수를 헤아렸는데, 다섯까지 수세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덧셈을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음.

20**. *월. *일 오전 산책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계획한 바깥놀이시간이 거의 끝나갔지만, 유아들이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를 활용하여 놀이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보고, 교사는 바깥놀이시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나뭇가지의 생김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였다. 크기나 굵기를 비교, 분류하고 나뭇가지의 개수를 세기도 하였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애는 애기일까? 어른일까?”, “나뭇가지가 두 개가 더 왔네. 이제 몇 개지?”

편성 및 교수학습

일과의 변화
(놀이시간 확장)

상호작용
(관찰하기/질문하기)

놀이

나뭇가지로 모양 만들기

유아들은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모양을 만들었다. 나뭇가지를 길게 이어놓기, 쌓아놓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주로 네모난 폐쇄공간을 만들었다.



“풀이 사는 집이야.”



“이 풀한테도 집을 지어주자.”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폐쇄공간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스스로 만들기 어려워하는 유아가 있어 교사가 함께 만들며 놀이를 지원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제안하기/놀이 참여하기)

놀이

나뭇가지로 상상놀이하기

“너희 모닥불 피워 봤어?”

“캠핑가면 밖에서 불 피우는 건데.”



“그럼 모닥불 만들어서 캠핑놀이 하자.”

“불을 크게 하려면 나무가 많아야 해.”

“지금 우린 캠핑 온 거야!”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나뭇가지로 집 만들기에 열중하던 유아들은 “너희들 모닥불 피워 봤어?”라는 한 유아의 갑작스런 질문에 나뭇가지에 불을 피우는 놀이로 관심이 옮겨졌다. 다른 놀이를 하던 유아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다.

캠핑놀이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가 발현되는 것을 보고 캠핑놀이와 관련한 놀잇감 및 자료를 지원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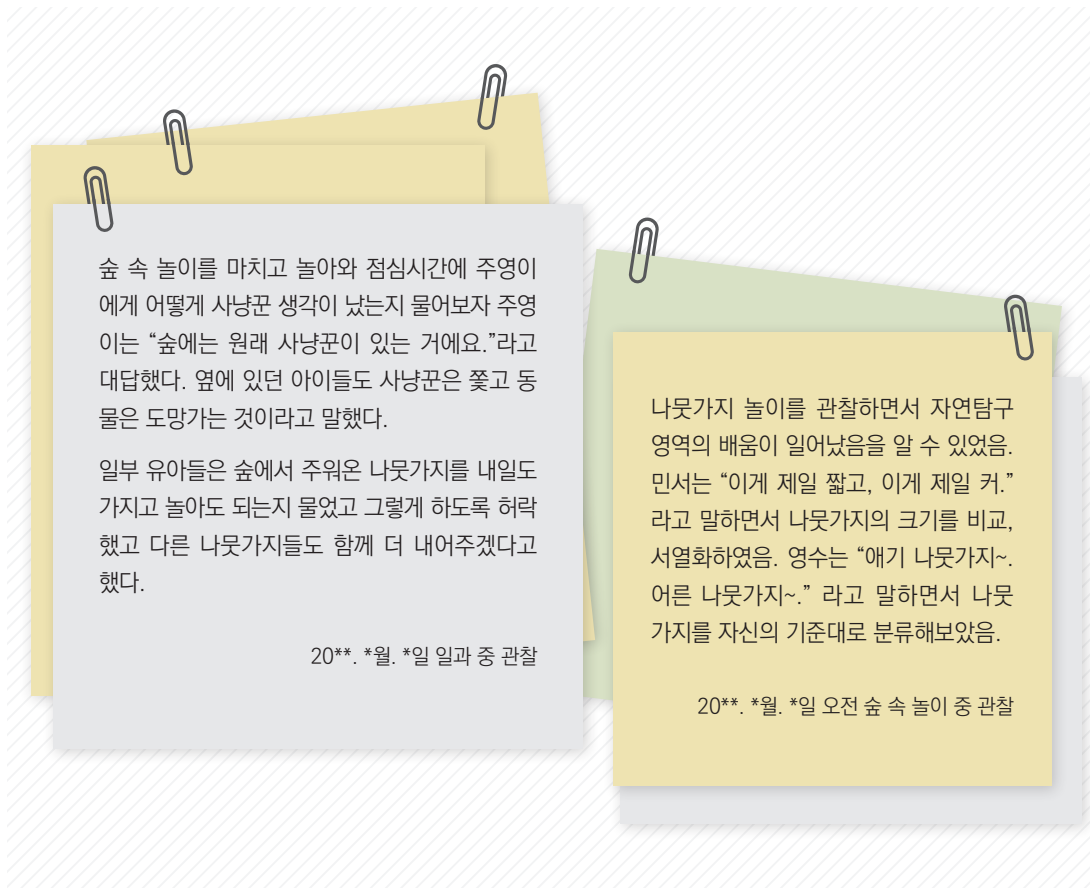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 일과계획의 변화를 기록하고 일과 운영을 간단히 평가한 예

3세 바다반 일일교육계획안

일자	20**년 *월 *일 *요일	수업일수	○○○/○○○일
일과 시간표	09:00~ 등원 09:10~ 실내놀이 10:10~ 오전간식 10:40~ 바깥놀이 11:40~ 화장실 다녀오기 12:10~ 화장실 다녀오기 11:50~ 이야기나누기 '주말 지난 이야기' 12:05~ 점심식사 12:20~ 점심식사 13:05~ 동화 '구름' 13:25~ 귀가지도 및 하원		
누리과정 운영 평가	• 나뭇가지를 탐색하고, 스카프를 활용하여 놀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바깥놀이 시간을 연장함. • 계획해둔 이야기나누기와 동화 활동은 반드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라고 판단함. • 점심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 해두었기 때문에 식사 시작시간을 늦추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 유아 관찰에 기반한 놀이 기록 및 지원 계획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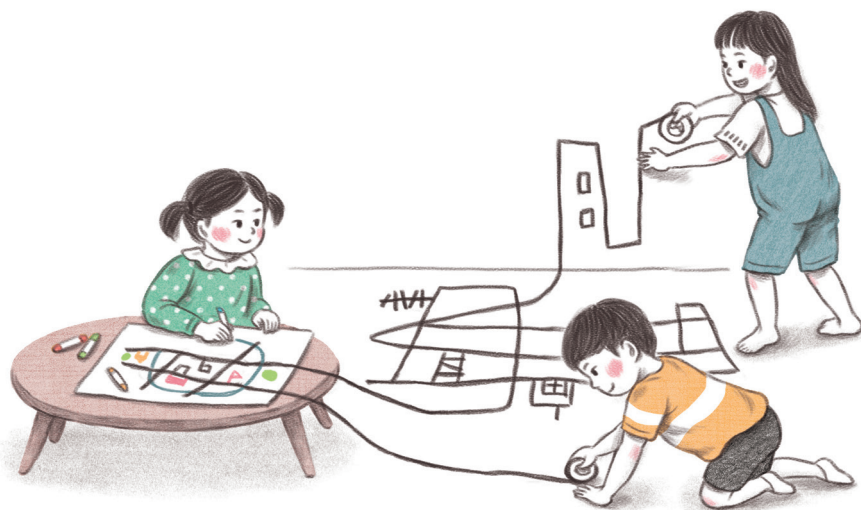
- 숲 속에서의 놀이를 통해 개별 유아가 사전 경험을 놀이 속에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놀이를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나뭇가지를 포함한 자연물로 놀이하는 과정에서 탐색하고 비교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등 자연탐구 영역의 배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유아들이 나뭇가지를 활용한 놀이에 흥미를 보이므로 유아들이 주워온 나뭇가지와 함께 나뭇가지 블록을 제공하기로 함. 산가지 놀이도 소개해볼 예정임.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놀이의 시작	• 평소와 같이 산책을 나간 어느 날, 한 명의 유아가 사냥꾼 이야기를 시작함. 유아들은 사냥꾼을 피해 숲 속 곳곳을 뛰어다니다가, 관심을 끄는 대상을 발견하면서 각자의 놀이에 빠져들.
 자료	• 자료의 활용방법을 교사가 안내하지 않고 유아들이 자신의 놀이에 필요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존중함.(예: 스카프)
 일과	• 유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 바깥놀이시간보다 일과를 조정하여 더 길게 진행함.
 상호작용	•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질문하기, 제안하기, 놀이 참여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놀이를 지원함.
 안전	• 숲은 넓고 개방된 장소이자 위험한 사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안전을 확인함.
놀이지원 계획/평가	• 유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후 일과를 조정하여 바깥놀이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함. • 놀이 중 개별 유아의 반응과 놀이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함.

02

공간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 놀이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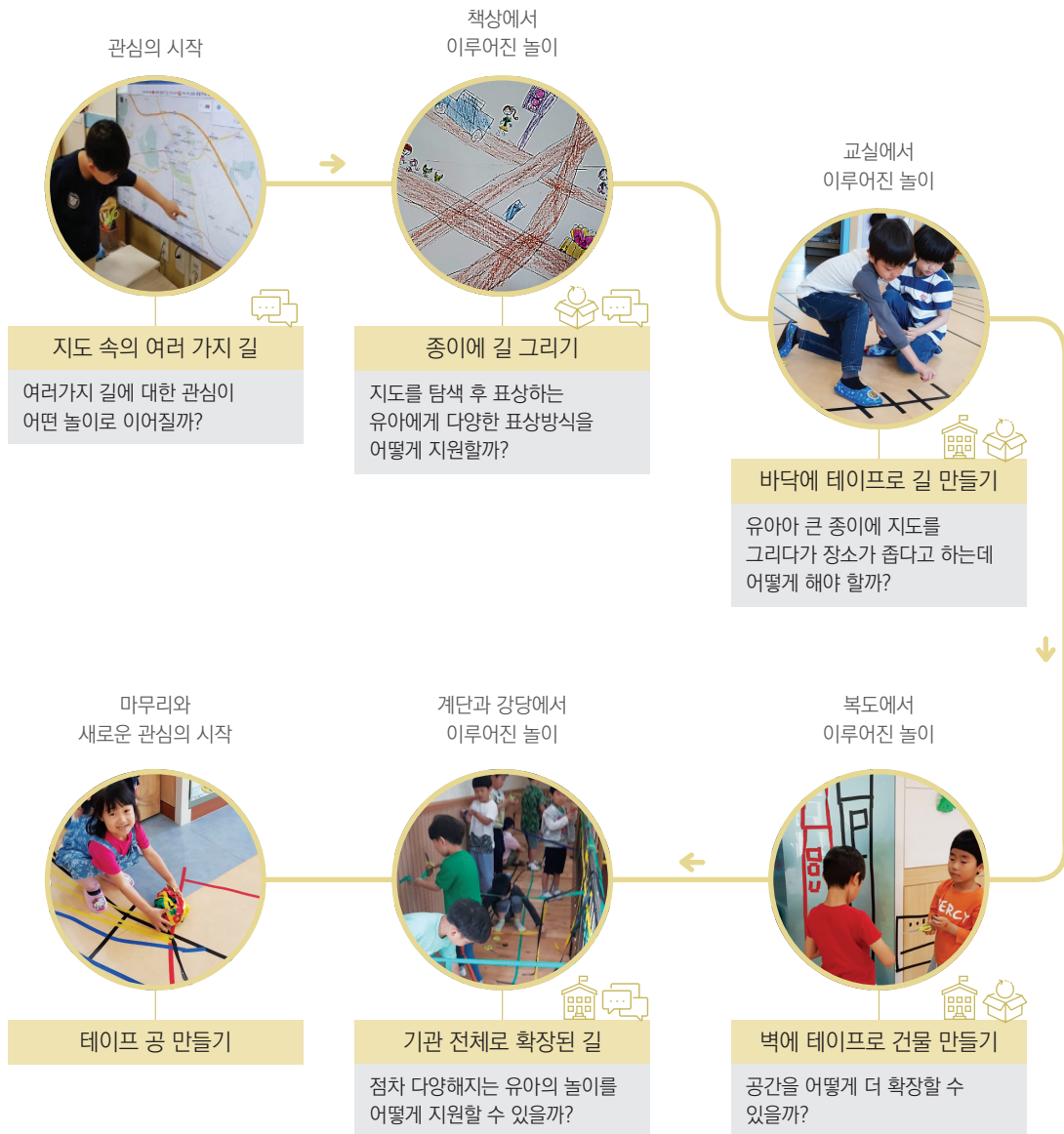
우리 동네는 고가도로, 사거리, 좁은 골목까지 다양한 길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다.

5세 민들레반 유아들은 교실 한 켠에 있는 지역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지도 속 우리 마을과 길에 대해 궁금해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시작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생각하는 ‘길’이 놀이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열린 공간과 재료를 제공하였다.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

지도 속의 여러 가지 길

지도를 살펴보던 유아들은 다양한 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관심은 특정장소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실내놀이시간 중 근처의 병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과 느린 길에 대해 논쟁이 오갔다. 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아가 지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병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

“난 다섯 가지 방법을 알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그러면 너무 멀리 돌아 가잖아?”

“아니야.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막힐 수도 있어.”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의 길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관찰하고 함께 상호작용하였다.

교사는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한 유아의 논쟁과 관심을 존중하고 새로운 놀이로 확장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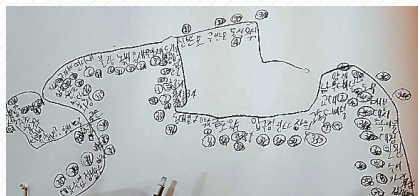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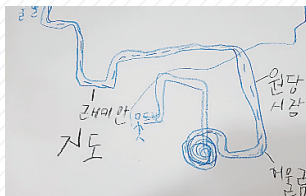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놀이

종이에 길 그리기

“우리 동네 길은 달팽이 같아.”
 “길은 서로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어.”



“차가 다니는 길, 지하철이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
 “지하철길은 서로 이어져 있어. 그리고 3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도 있어.
 거기서 갈아탈 수 있는 거지.”
 “지도에 색깔이 있는 길은 특별한 길이야. 고속도로도 있고 지하철도 있어.”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일반도로와 관련된 표상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길(지하철, 고속도로 등)에 대한 표상도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길을 더 큰 종이에 그리기를 원하는 유아들의 의견에 따라 교사는 큰 종이를 제공하여 유아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길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놀이

바닥에 테이프로 길 만들기

점점 더 큰 종이를 요청하던 유아는 교실 안에 큰 종이를 놓을 공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복도에 나가 큰 종이에 길을 그리기로 하였다. 복도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종이는 계속 이어 붙이기 어려워,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였다. 다음날 교사와 함께 자료실에 가서 바닥에 그리고 쉽게 지울 수 있는 적절한 그리기 도구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였다.

다음날, 유아들과 교사는 자료실에서 바닥에 그리기 적절한 그리기 도구를 찾다가 유아들이 테이프로 바닥에 길 만들기를 원하여 해보기로 하였다.

유아들은 복도에서 테이프로
길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테이프는 그냥 붙였다
떼기만 하면 되잖아요!”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가 복도에서 큰 종이에 길 그리기, 테이프로 길 만들기를 하며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이 바닥에 그리고 지우기 적합한 자료를 찾으러 자료실에 갔을 때, 유아가 그리기 도구 대신 선택한 테이프를 놀이 자료로 제공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공간의 변화
(교실 밖으로 확장)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놀이

벽에 테이프로 건물 만들기

“선생님, 색깔이 있는 테이프가 필요해요.”

“노란색은 고속도로, 파란 선은 1호선, 초록 선은 2호선, 빨간 선은 3호선이야.”



유아들은 벽에 테이프로
여러 가지 건물과 아파트를 만들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아파트가 있지.”

“아파트는 바닥에 있는게 아니지. 서 있잖아!”
“그럼 벽에다 그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유아의 색 테이프 요청을 수용하여, 교사는 4가지 색(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테이프를 제공하였다.

교사는 유아가 만든 길이 복도 바닥에서 벽으로 올라가 아파트가 되고, 더 크고 긴 길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공간의 변화
(교실 밖으로 확장)

놀이

기관 전체로 확장된 길

복도의 길은 점차 미로, 경사로 길 등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담으며 진행되었다.
유아는 더욱 계속해서 길을 이어 나가기를 원하였다.

“선생님, 여기서 멈춰야 해요?”

교실에서 시작된 ‘길’은 계속해서 기관의 계단과 강당까지 이어졌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예요.”



“경사로로 이어지는 길이야.”



“이건 저 멀리서부터 한 번도 안 끊기고 긴 길이지.”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계단과 강당 등 기관 건물 내 다양한 공간을 열어주어, 유아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는 마을의 ‘길’에 대한 놀이가 미로, 경사로 길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유아의 놀이를 수용하였다.

평소에 놀이하던 공간이 아니고 계단이나 강당은 넓기 때문에 유아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이어서 놀이하도록 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공간의 변화
(교실 밖으로 확장)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하기)

기타
(안전)

마무리와 새로운 관심의 시작

테이프 공 만들기

“선생님, 애들이 자꾸만 뛰어 다녀요.”
“다른 반 애들이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진짜 아깝다.”
“거미줄 같아. 끈적끈적 해. 거기서 잡아 당겨.”
“그런데... 재미있지?”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놀이참여도가 낮아지고, 복도에서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하자 교사는 유아의 의견을 물어 놀이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정리의 방법도 유아의 의견을 물어 함께 정하였다.

교사는 유아가 떼어낸 테이프를 사용하여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자, 정리시간이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질문하기)

일과의 변화
(놀이시간 확장)

▣ 놀이실행 및 지원을 기록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

주제	우리 동네	목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요일	실행	지원	
...	...	...	
목	교실 한 칸에 있는 지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장 빨리 가는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눔.	✓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아가 지도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함.	
금	인터넷으로 본 지도를 보며 그림으로 길을 표상함. 교실에 있는 종이가 작다고 하면서 점점 더 큰 크기의 종이를 요청함.	✓ 더 큰 종이 제공함: 도화지 → 4절지 → 전지 → 전지 이어 붙여서 그림 그리기.	
월	-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길을 그림으로 표상함. 그림에서 일반도로 뿐 아니라 다양한 길(예: 지하철, 고속도로 등)에 대한 표상이 나타남. - 종이를 이어 붙이는 것의 불편함과 더불어 이어 붙인 종이 위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자 다시 그럴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이 벌어짐.	✓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유아들과 토의하였고 복도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함. ✓ 종이는 계속 이어 붙이기 어려워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으나 바닥을 훼손하면 안 되므로 다음날 교사와 함께 자료실에 가서 바닥에 그리기 적절한 그리기 도구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함.	
화	- 자료실에 가서 바닥에 그리고 지우기 적절한 그리기 도구를 찾다가 우연히 테이프를 발견하고 테이프로 길을 만들자고 함. - 유아가 선택한 자료인 테이프로 유아는 복도에서 길을 만들기 시작함.	✓ 교사와 유아가 함께 자료실에 가서 유아가 선택한 자료(절연 테이프)를 제공함. ✓ 교실 외 놀이공간(복도) 활용함.	
수	- 복도에서 이어서 놀이함. 길이 더 길어지고 커짐. - 색테이프를 요청함. - 테이프로 벽에도 표상을 시작함. 노랑-고속도로 파랑-1호선 초록-2호선 빨강-3호선 “아파트는 바닥X. 서있잖아.”	✓ 벽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다 떼어 정리하나 걱정도 되었지만 유아들의 놀이를 지켜보기로 함. ✓ 요청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테이프 추가 제공함. ✓ 테이프로 만든 길 위에 입체적으로 동네를 구성할까 싶어 종이벽돌블록과 소품 일부를 제시해 보았음.	
목	- 제시한 블록, 소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오로지 테이프로만 길 만들기에 집중함. - 복도도 테이프길로 거의 꽉 차고, 멈춰야 되는지 다른 공간으로 길을 확장해도 괜찮은지 묻기 시작함. - 유아들과 토의 후 계단, 강당까지 가기로 함. - 길/미로/경사로 관련 대화가 오감.	✓ 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교사도 전체를 관찰하지만, 평소 놀이하던 공간이 아니고 다른 학급의 유아들도 오가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눔. ✓ 유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복도에서 계단, 강당까지 기관 전체로 이어서 놀이하는 것으로 함.	
금	- 테이프로 길 만드는 유아들이 줄어들고, 복도나 계단에서 길 만들기 놀이를 하기보다는 뛰어다니는 유아들이 많아짐. - 테이프를 떼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돌돌 말린 테이프가 공처럼 되었고 테이프 공은 다시 유아들에게 새로운 놀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함.	✓ 길 만들기 놀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음. ✓ 정리도 유아와 함께 진행함.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놀이자료(테이프 공)를 발견함. ✓ 테이프 공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유아들 스스로 창안하기 시작함.	

유아관찰에 기반한 놀이 기록의 예



놀이 시작과 동시에 수민이와 지은이는 아이스크림 마을을 어떻게 만들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체적인 형태와 색의 사용, 각 공간의 쓰임 등에 대해 정하고 검정색 테이프로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만들었다.

수민 “과자는 한 칸이 집이야. 가족들이 사는 집이니까 작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아파트가 되거든.”

지은 “그건 아니지 않아? 여기에다 해야지. 여기에 아파트를 하기로 했잖아.”

수민 “그래도 과자에 작은 네모가 있으니까 더 아파트 같지않아? 잘 봐. 여기 아이스크림 네모 칸 있지?”
(서로 마주보며 침묵)

지은 “우리 계획이랑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 과자가 더 아파트 같기는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엘리베이터야. 초록색 말고.”

수민 “알았어. 그렇게 하자.”

수민이는 아이스크림 마을을 완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 위치와 방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놀이를 진행하였다. 지은이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민이와 지은이는 말은 공간에 대한 역할을 나누고 서로 의견을 물으며 공간을 구성해 나갔다.

▣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놀이의 시작	• 유아는 교사가 교실에 제시한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며 '길'에 관심을 보이고, 놀이를 시작함.
 공간	• 교실 밖 복도를 활용하여 유아의 놀이가 지속됨. • 이후 벽, 계단과 강당까지 활용함.
 자료	• 테이프를 활용해 길을 만들자는 유아의 의견 수용함.
 일과	• 놀이시간을 연장하여 일과를 운영함.
 상호작용	• 관찰하기, 질문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등으로 놀이를 지원함.
 안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실 외 공간에서 놀이 시 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눔.
놀이지원 계획/평가	• 유아의 '길'에 대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계획함. • 길에 대한 교사의 활동 계획과 유아의 놀이를 함께 기록함. • 놀이 상황 중 개별 유아의 놀이를 즉시 일화기록으로 남김. • 2주 동안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누리과정 5개 영역의 경험을 찾아봄.

03

자료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 반짝이끈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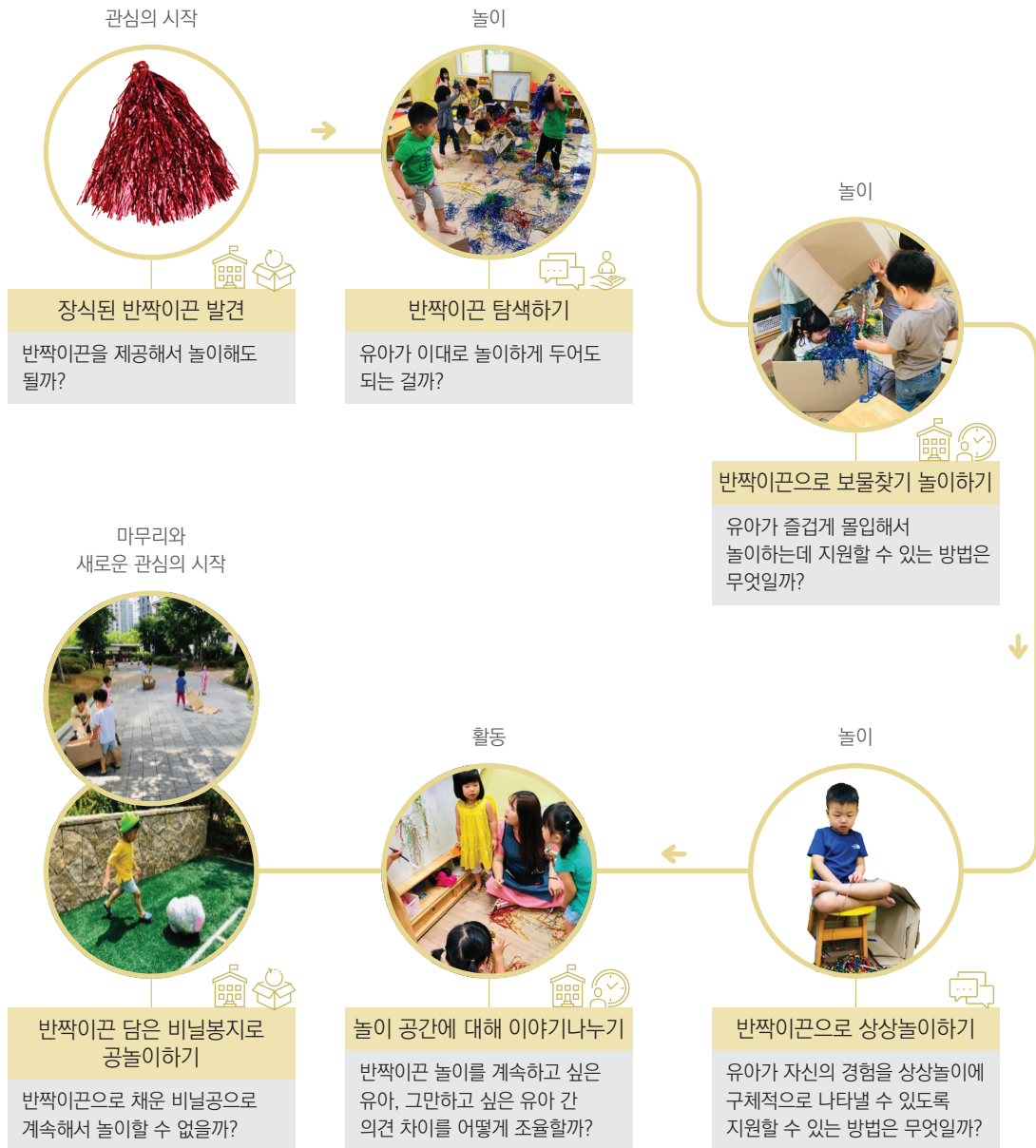
▣ 놀이의 배경



설악반은 15명의 3세 유아와 경력 3년 차 교사의 삶이 있는 곳이다.

어느 날, 가족행사를 위해 현관에 장식된 응원술에서 유아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장식이었던 응원술이 어떤 놀이자료가 되었을까?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

장식된 반짝이끈 발견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복도에 마련해 둔 포토존 장식으로 쓰인 응원술에 몇몇 유아가 관심을 보였다. 교사는 남은 응원술의 묶음을 풀어서 유아들에게 제공해주었다. 유아들은 응원술에 ‘반짝이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반짝이끈이 더 필요하다는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원장선생님과 의논한 후 자료를 더 구입해서 내주기로 하였다.

반짝이끈을 몸에 감고 바닥을 뒹굴고 머리 위로 던지고 흩뿌리는 모습을 보고 유아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구장을 이동하여 놀이 공간을 넓혀주었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공간의 변화
(교실 내 공간 재구성)

놀이

반짝이 끈 탐색하기

좀더 풍부해진 반짝이 끈을 만난 유아의 탐색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
 “여기서 보면 하얀색, 저기서 보면 초록색.”
 “바스락거려요!”
 “쿵! 떨어뜨려도 안 아프다!”



유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하게 탐색하고 놀이하였지만, 교실은 점차 지저분해졌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의 반짝이 끈 탐색 과정을 관찰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며, 유아들의 언어 표현을 통해 유아가 반짝이 끈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감각을 충분히 활용함을 관찰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즉각 멈추고 정리를 하게 하고싶었지만, 계획된 실내놀이시간까지는 유아의 놀이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지저분한 교실, 계획안 작성, 교육적 의의 등에 대한 고민을 원내 학습공동체에 공유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기타
(교사 간 협의)

놀이

반짝이끈으로 보물찾기 놀이하기

교사는 원내 학습공동체에 공유하고 협의한 결과, 새로운 자료 탐색을 위해 유아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아들에게 탐색의 시간을 더 주고,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지속해서 관찰하기로 하였다.

한 유아는 교실에 만들기 재료로 있던 박스를 가져와 반짝이끈 놀이에 함께 사용하였다. 몸을 웅크리고 박스안에 들어가서 숨는 놀이를 하다가 한 두 명의 유아가 반짝이끈으로 몸을 덮어서 숨는 놀이를 하였다. 점점 많은 수의 유아가 참여하였고 놀잇감을 숨기는 놀이로 확장되었다. 유아들은 이 놀이를 보물찾기 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내가 이 속에 인형도 숨겼어.
인형 어디 있게?”

“우리 반짝이끈으로 숨겨주자.”
”안 보이게 숨겨줘.”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박스를 반짝이끈 놀이에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놀이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구장을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하였다.

박스와 반짝이끈 놀이 자료의 결합으로 인해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표정이 즐거워 보이고, 적극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아, 유아가 놀이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실내놀이시간을 연장하여 일과를 운영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공간의 변화
(교실 내 공간 재구성)

시간의 변화
(놀이시간 확장)

놀이

반짝이끈으로 상상놀이하기

유아들은 반짝이끈의 특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반짝이끈을 활용하여 상상놀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긴 반짝이끈으로 낚시놀이하기, 정수기 만들기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상상놀이를 하였다.

“낚시줄로 낚시하고 있어.”



“반짝이끈 정수기 설치하겠습니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 자신의 경험을 놀이로 표상하는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면서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물고기는 몇 마리 잡으셨나요?”, “낚시하는 데 또 뭐가 필요할까?”

“정수기는 어떤 물건이야?”,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질문하기/놀이 참여하기)

활동

놀이 공간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차츰 반짝이곤 놀이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전히 반짝이곤 놀이를 하고 싶은 소수의 유아와 다른 놀이로 관심이 옮겨간 다수의 유아들 사이에서 놀이 공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시끄러워서 불편해요.”

“자꾸 날아오고
발에 달라붙는게 싫어요.”



유아들은 한 교실에서 모두가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반짝이곤 놀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옮겨보자!”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유아 간 의견 차이를 교사가 일방적으로 조율하지 않고, 유아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아주도적으로 반짝이곤 놀이를 할 공간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였다. 유아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은 스스로 옮기되 안전 상 교사가 관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었다.

편성 및 교수학습

일과의 변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공간의 변화
(교실 내 공간 재구성)

마무리와 새로운 관심의 시작

반짝이곤 놀이 정리하기 반짝이곤 담은 비닐봉지로 공놀이 하기

반짝이곤을 비닐봉지에 담아 비닐봉지가 공처럼 부풀어올랐고, 유아들은 그 특성을 활용하여 놀이하였다. 정리하면서 비닐봉지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굴리거나 던져 보기도 하였다.

“반짝이곤이 봉지에 가득 차고 있어요.”
“여기만 딱 붙이면 공이네 공.”



“반짝이 공이 굴러간다!”
“발로 차봐.”
“던져도 돼!”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유아가 반짝이곤 비닐공을 만드는데 필요한 테이프 등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반짝이곤을 비닐봉지에 담아 정리하여 만들어진 비닐공을 가지고 하는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실외에서 크게 움직이며 활발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유아가 결정한 자료 활용
방법 지지)

공간의 변화
(교실 밖으로 확장)

두 개의 놀이 주제를 반영한 월간교육계획안의 예

계절 주제와 유아의 발현된 놀이 주제가 동시에 진행됨					
주		5월 1주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놀이 (바깥 놀이 포함)	봄	봄꽃 만들기	꽃가게 꾸마귀	꽃가게 놀이	
		모형꽃, 화분으로 놀이	꽃싸 마라카스		티슈로 나뭇 만들기
		산책 사진으로 만든 책	씨앗 그림책	꽃모양 막대인형	봄의 곤충 그림책
	유아의 흥미에 따라 새로운 주제 '반짝이곤'이 시작되었고, 이를 반영함				
	반짝이곤	- 반짝이곤 가지고 나가 놀기 - 반짝이곤 나뭇가지에 묶기 - 반짝이곤으로 만든 도구로 운동하기			
		유아의 흥미에 따라 새로운 주제 '반짝이곤'이 시작되었고, 이를 반영함			
활동		- 우리 교실에는 어떤 장난감이 있으면 좋을까? - 상자와 반짝이곤 으로 어떻게 놀이할 수 있을까? - 놀이의 진행과정에 따라 문제해결 의견나누기			
		동화 '우리 가족' 동화 '봄소풍'			
		노래'봄에 피는 꽃'	- 봄꽃 찾아오기 게임하기 - 반짝이곤으로 신체 표현하기	- 노래 '씨앗아 자라자' - 반짝이곤으로 게임하기	- 노래 '개미' - 애벌레 신체 표현하기
	필요한 경우 활동을 통해 유아의 놀이를 지원함				
행사일정		5일- 원내 어린이날 행사 / 8일- 원내 어버이날 행사 & 포토존 22일- 원내 손씻기 교육 / 29일- 급식도우미 활동			

한 주 동안의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 예

월간계획에 기초하여 한 주간의 누리과정 운영의 실행을 기록하고 평가한 예							
기간		5월 2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놀이	봄	- 꽃가게 놀이 확장(조화, 포장지, 끈, 화분, 가위, 테이프, 다양한 종이 등) - 꽃가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놀이가 진행되도록 지원함. 필요에 따라 놀이그룹 또는 학급전체의 놀이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함.					계획에 없었지만 진행된 놀이의 기록
	반짝이 끈	- 그림책 <빨간 끈> 반짝이 끈 놀이의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그림책을 제공함.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활동을 통해 전체 유아와 함께 읽고 반짝이 끈 놀이와 연계하였음. - 반짝이 끈과 상자 놀이 반짝이 끈 속에 몸을 숨기던 유아들이 이제는 놀잇감을 숨기고 찾기 놀이를 함. 유아들 스스로 놀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함. - 반짝이 끈과 상자로 상상놀이하기 반짝이 끈과 상자를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었고 결과물을 활용하여 상상놀이가 전개됨.					
활동		- 이야기나누기 ‘놀이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갈등상황 해결하기 위해 활동으로 진행 - 동화 ‘빨간 끈’ ppt동화로 진행함 - 노래 ‘씨앗이 자라서’ 꽃가게 놀이 경험과 연계하여 진행함 - 반짝이 끈 게임 진행되지 않음					월안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실제 놀이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실행
바깥놀이		풀 찢어 소꿉놀이하기/반짝이 끈 나뭇가지에 묶기					
인성교육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일일 기록 및 지원		- 반짝이 끈 속성을 이용한 놀이로 전개되기 시작함 - 꽃가게를 열기 위해 꽃다발 만들기에 관심을 가짐	반짝이 끈과 상자를 같이 활용하여 숨기, 보물찾기 놀이를 함	- 반짝이 끈을 활용하여 상상놀이를 함 - 바깥놀이 동안 풀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함	반짝이 끈 놀이 공간에 대한 갈등상황이 발생하여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	- 반짝이 끈 정리하기 - 풀에 대한 관심을 교실로 확장해보고자 함	일일 및 주간으로 놀이내용과 지원계획에 대해 간단히 기록
주간 기록 및 지원		- 반짝이 끈으로 놀이하고 정리도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 정리 시 반짝이 끈을 비닐에 담아 공이 되었고, 바깥놀이 시 신체활동 소품으로 활용해 보았음. 유아들이 즐겁게 활용하며 놀이하여 반짝이 끈 공 굴리기 게임 및 바깥놀이 시 자유롭게 공 놀이하는 자료로 활용해볼 것임. - 실내놀이에서 지난 2주간 제공하였던 조화와 유아들이 만든 꽃이 어우러져 꽃가게 놀이로 진행됨. 교사가 놀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였지만 유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가게에 필요한 공간구성과 놀이자료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남. - 바깥놀이에서 풀을 뜯어 소꿉놀이, 찢기 등이 나타나며 봄의 식물에 대한 탐구와 심미적 감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교실에서 풀과 관련된 놀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놀이의 시작	• 가족의 날 행사를 위해 기관 입구에 장식한 응원술을 보고 몇몇 유아가 관심을 보임.
 공간	•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공간을 재구성하도록 허용함.
 자료	• 환경구성 자료였던 응원술에 유아들이 관심을 보여 놀이 자료로 충분히 제공함.
 일과	• 놀이공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나누기 활동 추가함. • 놀이시간을 연장하여 일과를 운영함.
 상호작용	• 관찰하기, 질문하기, 놀이 참여하기 등으로 놀이를 지원함.
 학습공동체	• 지저분한 교실, 계획안 작성, 교육적 의의 등에 대한 고민을 원내 학습공동체에 공유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음.
놀이지원 계획/평가	• 계절 주제 ‘봄’과 관련한 놀이 환경이 제공되었으나 유아의 놀이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월간·주간 계획을 수정 반영함. • 월간 계획에 기초하여 한 주간의 누리과정 운영의 실행을 기록하고 평가함. • 매일 진행된 놀이, 교육과정 운영, 놀이 지원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함.

04

자료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흙 속에 숨은 색깔



▣ 놀이의 배경

새싹반은 3세 13명이 모여 있는 학급으로, 기관 옆에는 모래놀이터로 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고 그 오솔길을 자주 산책한다.



새싹반의 ‘흙 속에 숨은 색깔’ 놀이는 비 오는 날 오솔길을 산책하며, 젖은 흙에 대해 생긴 유아들의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비 오는 날 산책 중 흙의 다양한 색을 경험한 유아들에게 어떤 새로운 놀이가 시작될까?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

비 오는 날의 산책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오솔길 산책을 나섰다.
산책 길에 유아들은 흙의 촉감이 평소와 다를름을 발견하였다.

“흙이 왜 푹신푹신한 느낌이지?”



“내 신발에 물이 튀었어.
어, 흙 색깔이네?”



“여기에 있는
흙 색깔도 변했어.”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들이 보인 흙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관찰하였다. 유아는
촉촉하게 젖은 흙을 만지고 밟으며 냄새, 촉감, 색 등을 탐색하고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였다.

교사는 지켜보다가 젖은 흙의 특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였다.
“밟으니까 젖은 흙은 마른 흙과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꼭꼭 밟아볼까?”
“손으로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 정말 운동화에 묻은 것처럼 손에도 흙물이 묻었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상호작용
(질문하기)

활동

흙 관련 동화 듣고 이야기나누기

교사는 흙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고민하다가 다음날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다.



진흙과 관련한 동화를 듣고 흙으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유아들은 동화에 나온 것처럼 진흙을 이용하여

“동글동글 만들어서 던지고 놀래요.”

“흙이랑 물이랑 넣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놀고 싶어요.”

“그럼 물감처럼 돼요?”

“흙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더 많이 넣으면 진짜 흙같은 색깔이 만들어 질 것 같아요.”

“책이랑 똑같은 인형은 만들고 싶어요.”

라며 흙과 물을 섞어 흙물감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 놀이하고 싶다고 하였다.

유아들의 제안을 반영해 다음 날 정원에서 놀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진흙 관련 동화를 들려주고 유아들과 흙을 이용한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었던 젖은 흙과 흙물에 대한 관심을 유아들이 즐거운 놀이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일과의 변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놀이

흙과 물 섞어보기

흙에 대한 작은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도록 바깥놀이 시간에 색깔이 선명한 황토를 제공하였다.

비에 젖은 흙을 경험하고 진흙놀이에 대한 동화를 들은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직접 물을 부어보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황토에 물을 부어 섞어 황토물을 만들며 물의 양에 따른 농도의 변화, 촉감과 색을 경험하였다.



“눈 감아봐. 미끌거리지?”
“와아~ 간지러워. 미꾸라지 같아.”



“흙이 녹으면 물감이 되죠?”
“선생님, 물 더 부어주세요.”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흙물의 색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황토를 준비하였고,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물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직접 황토에 부어볼 수 있게 하였다.

유아가 흙의 촉감과 색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아들이 흙의 변화와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물질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양한 표현을 촉진해 주기 위해 질문하였다.

“무엇을 만지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니? 마른 흙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

유아들이 농도에 관심을 갖게 되자 물의 양에 따른 색의 변화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다.

“물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넣어볼래?”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상호작용
(질문하기/제안하기)

놀이

흙물의 특성 탐색하기

흙물이 완성되자 유아들은 동화를 듣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흙물로 천을 염색해보고 원했다. 민지는 물과 섞인 흙의 질감에 즐거워하며 오랜 시간 몰입하며 놀이하였다. 광목을 황토물에 적시며 놀이를 하던 중 우연히 흙물이 땅에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고동색 흙과 대비를 이루는 붉은 색에 관심을 보이며 다시 광목을 황토물에 적셔서 땅 위에 흘려 보냈다.



“어, 흘렀다.”



“색깔이 빨간 색이네.
선생님, 이거 봐요.”
“물이 흘러가네.”



“더 짜볼까?
와, 색깔이 더 커졌어.”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달라요.”

민지는 흙에 따라 색이 다름을 인식하고 그림을 그리듯 황토물을 땅 위에 흘려 보내며 오랜 시간 놀이하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황토물에 염색해볼 수 있도록 광목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평소에 바깥놀이에서 모래가 발에 묻는 것조차 싫어하던 민지가 흙물을 만지고 주무르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었다. 교사는 민지가 좀더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늘로 자리를 옮겨주고 낮은 의자를 제공하였다.

놀이를 하며 민지의 언어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색깔과 농도, 물의 흐름, 색깔이 변화하는 과정 등을 신나게 이야기 하였다. 교사는 민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놀라움과 즐거움을 표현하며 반응해 주었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하기)

놀이

흙물에 천 염색하기

유아들은 광목을 흙물에 넣어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농도에 따른 흙물의 색깔과 주무르는 시간에 따라 염색된 천의 색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와~선생님, 흙이랑 색깔이 똑같아졌어요.”



“너 거랑 달라 .
너무 흐리잖아?”



“엄마처럼 탁탁해요?”
“천이 자꾸 손에 붙어.
어떡하지?”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가 필요할 때 흙을 더 제공해주고 근처에 건조대를 준비해 두었다.

진하게 물들이고 싶어하는 유아에게는 토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어떻게 하면 진한 흙색이 될까?”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상호작용
(질문하기)

놀이

염색한 천 건조하기

유아들은 흙물이 든 광목을 건조대에 널어 마르기를 기다렸다.

교사는 마르는 속도의 차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건조대의 위치를 양지와 음지에 각각 마련하였다.

유아들은 흙물이 마르면서 보이는 변화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다.



“언제 다 마를까?”

“언제 다 마를까? 서진이 건 다 말랐는데 내 건 아직 축축해.”

“진짜 신기해. 색깔이 달라졌어.”

“여기 만져봐. 이상한 게 생겼어.”

“으... 이 가루는 뭐야? 손 닦아야 겠어. 어? 이건 흙이네.”

흙물이 든 광목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유아들은 나무와 풀로 놀이를 이어 나갔다.



“나뭇잎 한 장만 줄래?”

“동그란 거? 길쭉한 거?”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건조대를 양지와 음지에 각각 마련함으로써 유아들이 광목의 건조 속도 및 광목 천의 변화 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놀이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상호작용
(놀이 참여하기)

실행된 교육과정과 예상 놀이주제를 기록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

즐거운 새싹반의 한 주 이야기

기간 : 2000. 0. 0.(월) ~ 0. 0.(금)

새싹반 이번 주 경험	놀이	여러 가지 돌과 흙 탐색하기 광목 흙 인형놀이		
	활동	함께 놀아요, 흙이랑 (동화) 던지면 안돼요 (이야기나누기)		
놀이 사진				
이번 주 유아들의 관심	• 흙이 서로 달라요. • 흙에도 색깔이 있어요.		• 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 돌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어요.	
	• 이번 주가 끝나갈 즈음 우연히 채색한 투명 통을 창가에 올려놓은 유아들이 창가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만들어진 무지개를 보며 '빛'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 유아들은 채색된 통과 그렇지 않은 통을 올려놓고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른 빛을 관찰하며 즐거워했음.			
다음 주 예상 관심과 놀이	• 빛은 예쁜 색깔이 있어요.		• 무지개 빛이 궁금해요.	• 빛은 왜 다 달라요?
	• 다음 주에는 새싹반 유아들과 반짝이는 '빛'에 대해 탐색하고 놀이할 것으로 예상됨. 한 주간 햇살처럼 반짝이는 유아들의 즐거운 시도가 가득하길 기대해 봄.			
학부모님과 함께 할 내용	•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흙과 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 함께 놀이해 주실 수 있도록 안내하기 • 흙과 돌과 관련된 재미있는 놀이나 경험을 한 유아가 있다면 클래스팅에 관련 사진과 이야기를 올려주시도록 안내하기, 다른 유아들과 함께 보며 자신의 경험을 즐겁게 나눌 것임에 대해 안내하기 • 흙과 돌, 빛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를 기관으로 보내주시도록 안내하기			

▣ 교사저널 형식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 예

놀이가 마무리 되던 넷째 날: 흙 인형으로 시작된 상상놀이



바짝 마른 광목을 털어내니 책 속에서 본 흙 인형을 만들자며 신이 났다. 몇몇 유아들은 처음과 색깔이 달라졌다며 신기해 했다. 바깥놀이에서 수집한 나뭇잎, 가지, 열매, 돌맹이를 재료로 인형을 만들었다. 유아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인형의 머리카락을 붙이고 옷에 단추를 달아주며 즐거워 하였다. 유아들이 만든 재미있는 흙 인형을 카펫으로 갖고 모이니 상상놀이가 시작되었다.

다섯째 날: 아이들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어제 인형 만들기 재료를 찾으러 나간 정원에서 유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찾았던 재료는 '돌'이었다. 정원에 있는 벤자민 화분 속 색깔 돌들과 정원의 크고 작은 돌들이 그것이었다. 여기저기 주머니 가득 주워온 돌은 다른 유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귀가 전 가방 속에도, 주머니 속에도, 유아들의 작은 손 안에도 한 두 개씩 돌이 들려 있었다.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가 시작된 듯 하다. 다음주, 유아들과 바깥놀이에 나가서 돌을 좀 더 수집하고 자료실에 있는 화분 돌도 제시해 보면 어떨까 싶다.

놀이가 마무리 되던 여섯째 날: 투명한 통으로 관심이 옮겨가다



오늘은 비가 왔다. 원래는 아침에 바깥놀이 하면서 돌을 조금 더 주워오려고 했는데... 어제 유아들이 모아온 돌과 기관에 있는 화분용 돌을 유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돌을 보면 담아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준비해 둔 투명통도 함께 주기로 했다. 일찍 온 유아들이 투명통을 갖고 놀이를 시작했다. 계획한 일과 대신 유아들의 놀이를 좀 더 허용해 주기로 했더니 길게 줄 세우기, 높이 쌓기 등 신나게 놀이했다.

▣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놀이의 시작 • 비 오는 날 기관 건물 옆 오솔길을 산책하던 유아들은 물에 젖은 흙 색깔에 관심을 보임.
공간	 • 마당을 주된 놀이공간으로 흙물을 마음껏 탐색함. • 마당의 양지와 음지의 차이를 경험함.
자료	 • '황토'와 황토물을 염색해볼 수 있는 '광목'을 준비하여 제공함.
일과	 • 흙 관련 동화 활동을 진행함. • 동화를 듣고 하고 싶은 흙놀이를 유아들과 토의함.
상호작용	 • 관찰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놀이 참여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등으로 놀이를 지원함.
놀이지원 계획/평가	• 유아의 흙물에 대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흙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여 계획함. • 전 주 놀이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주 예상 놀이를 포함함. • 매일 진행된 놀이, 교육과정 운영, 놀이 지원 등에 대해 관찰 내용을 교사저널에 간략하게 기록함. • 기록에 대한 검토 후 추후 주간계획안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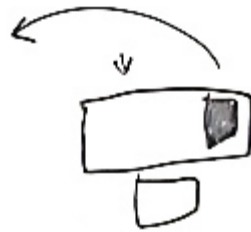
05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
지렛대 놀이



▣ 놀이의 배경

항상 신나고 자유로운 가운데에는 4세 유아 26명이 함께 하고 있다. 유아들이 생활 속 각종 도구에 흥미를 보여서 ‘생활도구’ 주제를 진행하며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과학체험관에 견학을 다녀왔다. 그 후 교실은 도구와 기계를 구성하며 놀이하는 유아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한 유아가 체험관에서 본 지렛대를 구성하고 블록 날리기를 시도하자, 교실은 소란스러워지고, 블록이 튀면서 주변에서 놀이하고 있던 유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어떤 놀이가 벌어졌을까?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

지렛대와 날아가는 블록

‘생활도구’ 주제가 진행되며 ‘과학체험관’에서 지렛대를 보고 온 뒤 어느 날,



“이거 지렛대 놀이다!”
“이렇게 블록이 송~. 날아가요.”

교실 한 칸에서 한 두 명의 유아가 지렛대를 만들어 블록 날리기를 시작하였다.

“아우, 깜짝이야!
갑자기 블록이 날아와. 맞을 뻔했네.”
“선생님, 애네들이 블록을 날려서, 불편해요.”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지렛대 놀이를 하는 유아와 주변 유아 모두에게 불편함 없이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유아들이 더 넓은 복도에 나가서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놀이공간을 확장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공간의 변화
(교실 밖으로 확장)

놀이

자유롭게 블록 날리기

복도로 나온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블록 날리기를 하였다. 유아들은 스스로 지렛대에 힘을 가하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면서 블록을 날리기 위해서는 발로 지렛대를 누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엉덩이로 쿵 누를 수도 있다!”

“발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가 온몸으로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복도에 있던 물건을 치워주었다. 그리고 복도를 공유하는 다른 반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으며 아이들과 이야기하여 블록은 다른 반 출입문 반대쪽으로 날리도록 하여 모두의 안전을 고려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기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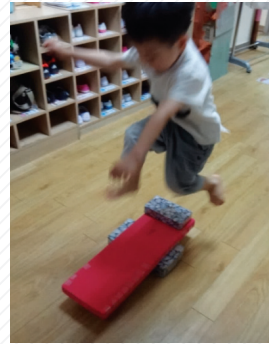
놀이

멀리 날리기 위한 조건 탐색하기

유아들은 블록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지렛대에 가하는 힘이 세야 함을 알게 되었다.



“살짝 뛰면
벽돌을 내가 바로 잡지!”



“멀리서 뛰어오면
벽돌이 더 멀리 날아가!”

유아는 지렛대 받침대의 높이에 따라 블록이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유아는 시행착오를 거쳐 블록을 날려 보내기에 가장 적절한 높이의 받침대 개수를 찾았다.



“이렇게 높이 하면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야?”



“2개가 딱 적당해요.”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가 블록을 멀리 날리기 위한 조건을 주도적으로 실험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관찰하기)

놀이

멀리 날리기 시합하기

복도에서 블록 날리기 놀이를 제각기 하던 유아들은 점차 누가 더 멀리 날리는지 시합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어느 쪽이 더 멀리 가는지
시합해보면 알지.”
“내가 더 멀리 날릴 거야.”



한 유아가 먼저 블록을 날리고 멀리 떨어진 블록을 다시 주워 왔다.
뒤이어 다른 유아가 블록을 멀리 날렸다.

“내가 더 멀리 날렸지?”
“아니지. 내 거가 더 멀리 갔어. 아까 나는 이만큼 왔잖아.”
“아닌데. 잘못 본 거 같은데?”
“선생님, 내 거가 더 멀리 갔는데 애가 자꾸 자기가 더 멀리 갔대요.”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 간 갈등을 중재하면서 유아가 블록이 날아간 거리를 비교, 측정하는 것이 수학적 경험을 하기에 교육적으로 적절한 순간이라 생각하였다. 유아가 블록이 날아간 거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날아간 블록을 그냥 가져와 버리면, 얼마나 멀리 날렸는지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닥에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유아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와서 블록이 떨어진 곳에 놓고 블록을 되가져오는 방법으로 시합을 진행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질문하기)

놀이

목표물 맞추기 시합하기

복도에서 자유롭게 지렛대로 블록 날리기 놀이를 하다가, 유아가 날린 블록이 복도 한쪽으로 치워 두었던 공동작품 나무에 우연히 맞았다.

(교사의 눈치를 보며) “야, 그걸 맞추면 어떡해...”

교사는 미소 지으며 공동작품 나무를 복도 가운데로 옮겨주었다.
유아들의 놀이는 나무에 블록 맞추기 시합으로 이어져 나갔다.
다른 유아들도 관심을 가지며 점차 많은 수의 유아가 복도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공동작품에 유아가 블록을 날려 맞춘 상황에서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공동작품 나무를 복도 중앙으로 옮겨주었다.

교사는 더 많은 아이들과 이 놀이를 함께 하고 싶다는 유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놀이를 활동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하기)

일과의 변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활동

지렛대로 블록 날리기 게임하기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온반 모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아들 스스로 창안한 게임인 만큼 게임의 방법 설명하기, 게임 자료의 준비와 배치, 규칙 정하기 등 모든 과정을 유아가 주도하도록 하였다.

“우리 팀 지렛대 높이는 이정도로 하자. 어때?”



“아냐. 2개나 3개가 적당해.”



“나무판이 출발선에서 너무 멀어.
좀 당겨!”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로부터 발현된 게임이므로 최대한 게임을 개발한 유아들이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사는 다른 유아들과 함께 경청하다가 개입이 필요한 순간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정리하면서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질문하기/제안하기)

활동

지렛대 놀이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게임 활동 후 유아들은 지렛대 놀이에 대한 흥미가 커졌고, 교실 안에서도 지렛대 놀이를 하였다. 또다시 지렛대 놀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유아가 있어, 교사는 교실 안에서 지렛대 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과 놀이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요청에 따라 세모 받침대를 제공하였는데, 지렛대가 자주 미끄러졌다. 유아들은 새롭게 사용할 지렛대로 자료실에서 폼보드를 골랐다.

놀이를 하던 중 유아는 지렛대의 높이 뿐 아니라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점차 유아들의 놀이는 상자에 물체를 골인시키는 게임으로 발전되었다.

1. 동그라미 카펫 안에서 놀이해요.
2. 만약에 친구의 몸에 맞으면 실수였더라도 사과해요.



“발사!”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실 안으로 옮겨진 지렛대 놀이로 다시 유아 간 갈등이 빈번해지자 교사는 일과를 변경하여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였다.

유아들의 요청에 따라 세모 받침대를 제공하였고, 새로운 종류의 지렛대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들과 함께 자료실에 가서 의논 후 폼보드를 제공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일과의 변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마무리와 새로운 관심의 시작

발사대 놀이

지렛대 놀이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교실 한쪽에서 몇몇 유아들은 생활 속의 도구 중 스프링의 움직임이 주는 흔들거림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는 놀잇감을 만들며 놀이하였다.

“꼭 늘어났다 손을 놓으면 텅~.
다시 줄어 들고 흔들흔들해요!”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와
친구가 깜짝 놀라요”



“스프링과 지렛대 놀이가 만나니
새로운 놀이가 되었어!”

스프링이 달린 놀잇감을 발명하던 유아들이 교실의 지렛대 놀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렛대 놀이는 스프링이라는 새로운 자료, 유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발사대 놀이로 발전되어갔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발사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모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평평한 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들과 각종 판지와 상자들을 살펴보다가 유아들이 선택한 상자의 덮개를 제공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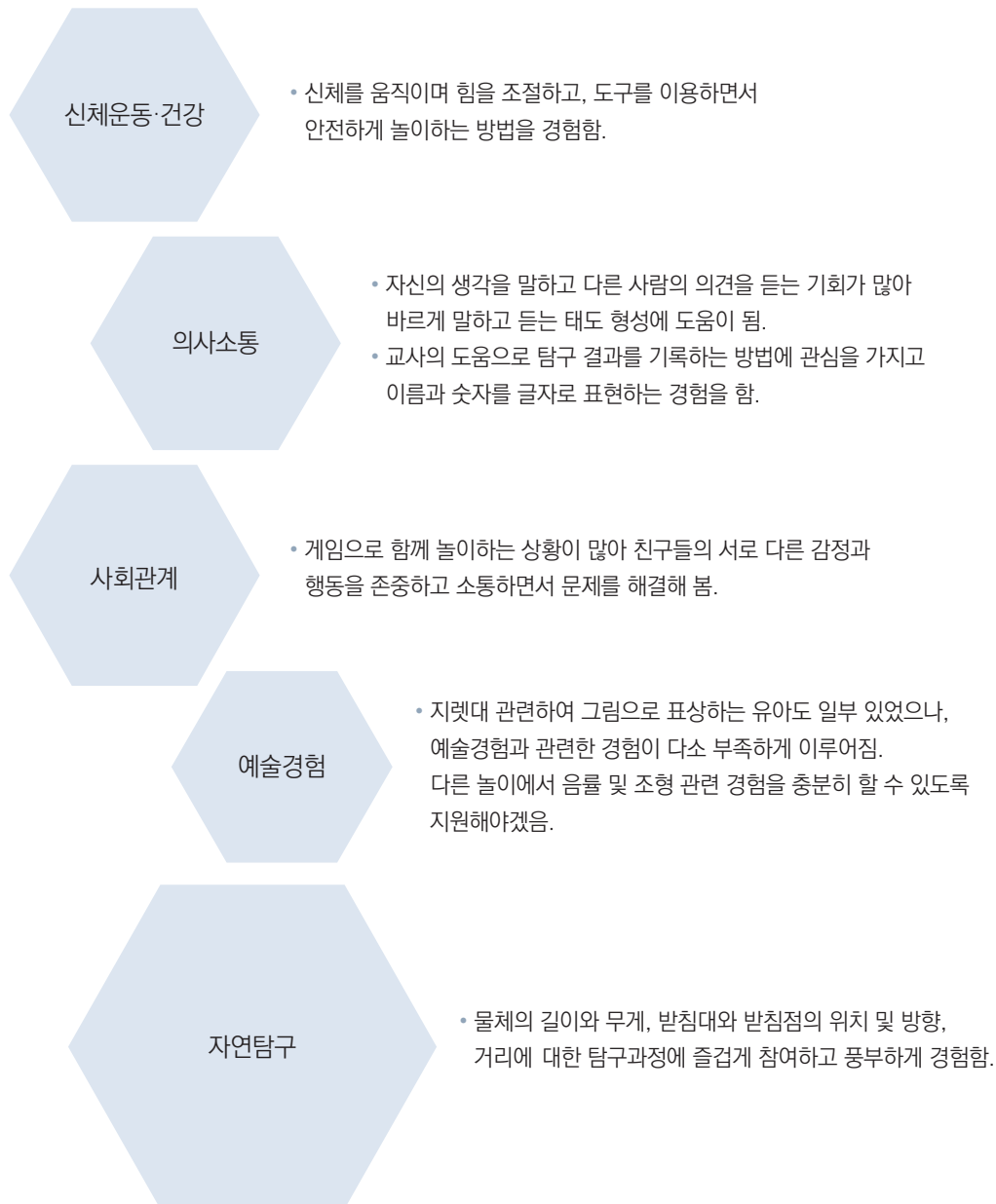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교육계획안과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통합한 예

지역사회 '과학체험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이 놀이로 이어져 도르래와 지렛대 놀이가 6주간 전개되었다. 지렛대 놀이는 부모참여 수업을 거치면서 스프링의 원리와 연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놀이 맥락을 반영하여 총 8주에 걸쳐 실행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계획안을 수정하고 평가를 함께 기록하였다.

		도르래	지렛대	스프링	생활에서 불편한 점
놀이	실내	엘리베이터 만들기	→ 지렛대 놀이	→ 스프링발사대 놀이	지렛대 놀이가 발현되어 다음 주 추가 계획됨
		엘리베이터 놀이하기	자석낚시놀이		
		물건 수수께끼		←	
		툰니바퀴만들기	지렛대 원리 물건 찾기	스프링이 들어간 물건 찾기	
	실외	〈잔디 마당〉 축구하기 〈자전거 길〉 세발 자전거 타기			
		〈대근육 놀이〉 복합놀이기구 이용하기 〈물·모래놀이〉 자연물 이용해서 물·모래놀이 하기			
		〈데크/그늘영역〉 돌탑 쌓기 놀이 〈작은 정원〉 동식물 관찰하고 돌보기			
활동	엘리베이터 놀이를 하려면?	지렛대는 어떻게 이용될까?	스프링은 어떤 물건에 들어있을까?	교실에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면? 만일 편리한 물건이 없다면?	
			동화) 쪽 늘어났다 팅 줄어드네	유아의 흥미 및 놀이 발현에 따라 수정하여 진행	
		노래) 지렛대			
			00과학체험관		00과학체험관 재방문
누리과정 운영 평가		도르래에 대한 흥미는 블록으로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놀이로 나타났고, 우연히 시작된 지렛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복도를 놀이공간으로 확장하고 유아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더니 유아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놀이가 2주 이상 지속되었다. 학부모 참여 수업과 연결되며 스프링에 대한 관심이 놀이로 이어져 의미 있었다.			

▣ 유아의 경험을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이해한 예



▣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놀이의 시작	• '생활도구' 주제 진행 중 과학체험관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렛대 놀이가 자연스럽게 시작됨.
 공간	• 지렛대로 블록 날리기 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한 복도로 놀이 공간을 확장함.
 자료	• 유아가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적절한 자료를 함께 탐색·제공하고 활용방법을 지지함.
 일과	• 지렛대로 블록 날려 목표물 맞추기 게임 활동, 지렛대 놀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여 유아의 놀이를 지원함.
 상호작용	• 관찰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정서적 지원하기 등으로 놀이를 지원함.
 안전	• 유아가 복도에서 지렛대 놀이를 시작할 때와 멀리 날리기 시합을 할 때 안전 관련 규칙을 유아들과 의논하고, 놀이를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관찰함.
놀이지원 계획/평가	• '생활도구' 주제 하에서 유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자료를 제공함. • 실행 과정에서 유아의 실제적 흥미에 기반하여 주제를 덧붙여 감. • 유아가 놀이시간에 그린 지렛대 관련 표상물을 통해 과학적 개념 형성 및 이해도, 탐구 태도 등을 평가함. • 지렛대 놀이에 나타난 누리과정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서술하여 평가함. • 약 두 달간 진행된 지렛대 놀이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함.

06

통합 학급에서의 놀이 사례:
함께 해서 더 즐거운 놀이



▣ 놀이의 배경



5세 풀잎반에는 자폐 유아 2명과 지적 장애 유아 1명이 함께 있는 통합 학급이다. 어느 날 풀잎반의 점심 식사 반찬에 나물이 있었다. 유아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식재료로 남은 나물을 탐색하면서 놀이가 시작되었다.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들이 함께 하는 놀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



관심의 시작

다양한 봄나물

점심시간에 나온 나물반찬으로 봄나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유아들의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에 요청하여 남은 식재료를 받아 탐색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저마다 관심이 가는 봄나물을 하나씩 잡고 손으로 비비고, 냄새를 맡고, 줄기를 구부려보고, 입을 줄기에서 떼었다. 자신이 탐색한 봄나물을 그림으로 그렸다.



“우와 이 나물은 진짜 길어.”
 “이건 키가 너무 작는데 줄기가 엄청 뚱뚱해.”
 “이건 우리가 먹었던 반찬에서 나는 그 냄새야.”
 “내 손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나잖아!”
 “모두 다 초록색인데 왜 다른 초록색이지?”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교사는 봄나물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봄나물을 제공해 주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자유로운 탐색을 돕고자 흥미영역을 넓혀서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교사는 봄나물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을 놀이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유아가 발견한 자료 지원)

공간의 변화
(교실 내 공간 재구성)

놀이

봄나물 색 탐색하기

흰 종이 위에 봄나물을 올리고 주방도구들로 두드리자 즙이 묻어나고 유아들은 신나게 봄나물을 두드리며 저마다의 색을 관찰하였다.

“야, 국자로 해봐. 더 잘 된다.”
 “더 세게 해봐.”
 “접시로 해 봤어? 이거 봐.”



“선생님이 국자 줄까? 해볼래?”
 “나는 안 할거야.”
 자폐 유아는 나물 만지기를 거부하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유아들이 종이 위에 나물을 올려놓고 손으로 문질러도 즙이 잘 묻어나지 않자 교사가 다양한 도구 사용을 제안하였다.

특수교사는 새로운 감각탐색에 두려움을 나타내며 친구의 모습을 지켜만 보는 자폐 유아에게 봄나물을 국자로 두드리 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하지 않았다. 교사는 장애 유아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 보기로 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상호작용
 (제안하기/관찰하기)

놀이

함께 봄나물 식당놀이 하기

물감과 봄나물을 섞어 놀이하기 시작하면서 봄나물이 다양한 색으로 변하자 유아들의 관심이 봄나물 요리 놀이로 확장되었다.

자폐 유아도 새로운 재료인 물감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의사소통의 문제를 나타내어 친구의 놀이 제안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이 놀자!”



“선생님~ 제가 만든 맛있는 봄나물 무침이에요.”

“손님, 여기 다양한 봄나물 요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의 놀이참여를 제안하였지만 장애 유아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는 장애 유아와 함께하며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지지해주었다.

유아들이 음식을 먹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책상을 옮기고 공간을 넓혔다. 이어 유아들은 식당에서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하기)

공간의 변화
(교실 내 공간 재구성)

놀이

함께 놀이하고 정리하기

한 유아가 지적 장애 유아에게 다가가 봄나물 요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지만 봄 나물이 요리 재료인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 유아는 계속해서 나물 만지기를 거부하였다.

“나는 그거 안 할거야. 오렌지 할거야.”
“알았어, 너는 그거 해.”



“여기에 주스를 따라줄게.”

특수교사는 지적 장애 유아가 요리 놀이를 할 때 사용한 음식 모형을 제공해 주었다.
장애 유아는 음식 모형을 만지며 일반 유아와 함께 요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지적 장애 유아에게 좀 더 익숙한 놀잇감을 제공하자 장애 유아는 관심을 갖고 놀이하기 시작하였다.

유아들간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바닥이나 책상에 묻은 물감을 치우는 과정도 즐겁게 진행되었다. 수건을 주고 정리정돈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자 즐거운 분위기로 교실정리가 마무리 되었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일과의 변화
(놀이시간 및 정리시간 확장)

놀이

놀이하며 생기는 갈등

놀이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여 교실 바닥이 젖기 시작하였다. 근처에서 다른 놀이를 하는 유아들이 불편해하였다.

봄나물 놀이에 관심 없이 블록 놀이만 하던 또 다른 자폐 유아는 물감에 대해 크게 거부하며 자신의 블록이 젖을까 우려하여 친구들에게 큰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싫어 싫어! 물감 묻는 거 싫어!”
“내 꺼 안돼 만지지마!”



“너희들 물감 때문에
내 양말 다 젖어서 벗었잖아!”
“우리가 너무 어지른 것 같은데...
조금 치울까?”
“아냐, 난 더 크게 하고 싶은데”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봄나물 놀이를 하는 유아들과 하지 않는 유아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통합교사는 특수교사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장애 유아도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기타
(교사 간 협의)

놀이

테라스에서 봄나물 놀이하기

테라스로 놀이 공간을 확장하여 놀이하자, 보다 많은 유아가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원하였다.

장애 유아들도 달라진 놀이공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였다.

“선생님,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주스 마셔.”

“야, 이거 마시면 안돼! 이거 진짜 아니야!”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통합반 두 교사의 협의 결과, 평소 실외 놀이 장소를 선호하는 장애 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라스로 놀이 공간을 확장하였다.

그릇을 사용하는 문제로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의 갈등이 발생하자, 특수교사는 장애 유아와 대화 후 장애 유아가 원하는 그릇을 추가로 제공하여 일반 유아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공간의 변화
(교실 밖으로 확장)

자료의 변화
(교사가 계획한 자료 제공)

마무리

봄나물을 활용하여 놀이하기

봄나물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봄나물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도 줄어들었다. 유아들은 봄나물 식당놀이 대신 폐품과 봄나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만들기를 하거나 봄나물 액세서리를 만들며 놀이하였다.



“봄나물로 가방 만들었어요.
하트 가방이에요.”
“가방! 가방이야 가방!”



교사의 놀이 지원 실제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들의 관심이 완전히 소거될 때 까지 봄나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다른 놀이에 나물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편성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변화
(유아가 결정한 자료
활용 방법 지지)

▣ 실행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정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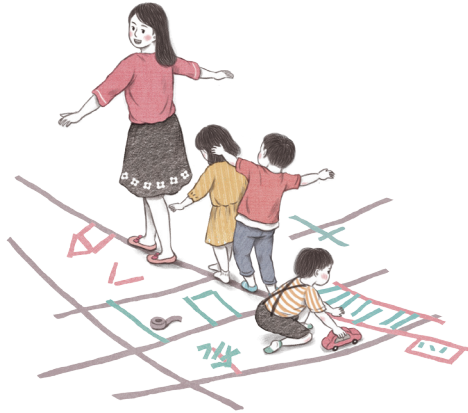
계절 및 주제에 따라 놀이환경을 제공해주지만 유아의 놀이발현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수정함					
기간	2000년 월 일 ~ 월 일		연령	5세	담임
주제	봄		소주제	봄의 식물 + 봄나물	
목표	• 봄이 되어 변화하는 동식물의 특성을 탐색한다. • 동물과 식물을 보살피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주	(월)	(화)	(수)	(목)	(금)
등원 및 맞이하기	• 등원 길에 보이는 봄의 식물에 관심가지기				
놀이	• 개구리 연못 만들기 • 꽃가게 놀이 • 여러 가지 식물도감 • 식물의 성장과정 • 식물 뿌리 관찰 • 봄을 담은 모빌 • 다양한 악기 소리 탐색 → 봄나물 식당 만들기 + 봄나물 즙내기 → 폐품과 봄나물로 자유롭게 만들기				
활동	〈이야기나누기〉 • 봄의 식물 • 봄에 볼 수 있는 동물과 곤충 • 동·식물의 성장 과정 → 봄나물 놀이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진행 〈동시〉 • 호랑나비 하양나비 〈동시〉 • 꽃장수				
바깥놀이	• 개미 등 곤충 찾아보기 • 산책, 식물탐색 • 들꽃의 뿌리 관찰				
	• 〈대체활동〉 장애물 공굴리기/2인 1각 달리기				
지역사회연계	• 이야기 할머니/우당도서관 북버스 → 이야기 할머니와 산책하며 풀 이름 알아보기				
기본생활습관	• 이럴 땐 손을 꼭 씻어요.				
안전교육	• 약물오남용 - 약은 정해진 양만 먹어요.				

유아 놀이 관찰 내용과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함께 기록한 예

구분	내용
유아 놀이 관찰 내용	주현이가 봄나물로 가방을 만들었다. 서진: 이거 가방! 가방이야 가방! 서진이 거야. 주현: 서진아 너도 만들래? 주현이가 서진이에게 지퍼백을 준다. 서진이가 가방 만들기를 어려워하자 주현이, 교사가 도움을 주어 완성한다. 가방이 완성되자 서진이는 주현이에게 가방을 보여준다. 교사: 이거 가방이야. 서진: 이거 가방이야. 교사는 서진이가 주현이에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리과정 운영 평가	• 친구의 놀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장애유아를 관찰 하던 중,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의 놀이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긍정적인 통합놀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장애 유아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신체적 촉진, 언어적 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놀이 지원을 하였음. • 놀이전반에서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놀이가 즐겁게 이루어졌으며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모방하여 표현하는 장애 유아를 관찰할 수 있었음. • 바깥놀이에서 할 수 있는 통합활동을 계획해보고자 함.

▣ 놀이사례 한 눈에 보기

교 사 의 놀 이 지 원	놀이의 시작	점심 식사 반찬으로 나온 봄나물에 유아들이 관심을 보임.
	 공간	- 봄나물을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함. - 탐색의 특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교실 밖으로 공간을 확장함.
	 자료	- 봄나물을 탐색하고 놀이에 활용하는 유아의 활용방법을 지지함. -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함.
	 일과	유아가 정리도 즐거워하자 놀이의 정리시간을 충분히 제공함.
	 상호작용	관찰, 제안, 놀이 참여, 정서적 지원하기 등으로 놀이를 지원함.
	 장애통합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통합반 교사 간 협의 시간을 가짐.
	놀이지원 계획/평가	- 유아의 놀이에 대한 기록과 교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놀이 지원을 제공함. - 놀이 상황 중 개별 유아의 놀이를 간단히 기록함. -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함께 작성함.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박은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연구참여자 강재희 교수(오산대학교) 김경성 원감(배곧누리유치원) 김연진 원장(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김운기 대표(푸르니보육지원재단) 김은정 교수(제주국제대학교) 김 용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김희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남기원 교수(중앙대학교) 변은영 원장(제주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성지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신혜영 교사(성사유치원) 오은순 교수(공주대학교) 우현경 센터장(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수정 교수(위덕대학교) 전홍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차기주 교수(가천대학교) 최명희 교수(신구대학교) 최은영 원장(동해부영어린이집) • 연구보조원 김교령 박사과정생(이화여자대학교) 한산섬 석사과정생(이화여자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제공 기관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동해부영어린이집 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성사유치원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오산대학교부설유치원 제주국제대학교부속유치원 |
|---|---|
- 〈이상 가나다순〉
-
- 총괄기획 김은영 연구위원,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강은진 연구위원, 신정숙 부연구위원, 최윤경 연구원, 신혜영 연구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 연구협력관 문복진 연구관, 김현지 연구사(이상, 교육부)
 - 오성일 서기관, 김윤구 주무관(이상, 보건복지부)

-
- 펴낸날 2019년 12월
 - 펴낸곳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www.mohw.go.kr
 - 디자인 유월애 (02-859-2278)
 - 인 쇄 리드릭 (02-2269-1919)
-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524-01
ISBN 979-11-90485-34-0 93370

